

I.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1. 사림의 득세
2. 붕당의 출현
3. 붕당의 성격

I.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1. 사림의 득세

1) 명종대의 정세

明宗代의 정국은 이른바 土禍期에서 붕당정치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초기의 乙巳土禍를 계기로 확립되는 戚臣 지배체제를 시작으로 해서, 말기에는 향촌에서 착실하게 재지적 기반을 다져온 사림세력이 점차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는 시기였다.

己卯土禍 후 중앙 정계에서 크게 실세한 사림파는 중종말 金安老의 실각 후 그 일부가 재등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인종 즉위 후에는 좀더 나은 정치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앙 정부의 구성에 있어 사림파의 비중이 좀더 커진 것이 그러한 변화 중의 하나였다. 이 시기에 오면 의정부·육조에 李彦迪·權機을 비롯해서 申光漢·柳仁淑·尹漑 등이 진출해 있었고, 대간에서도 閔齊仁·李滢·宋麟壽·具壽聘 등이 대사헌·대사간으로 재직하였고, 신진세력인 郭珣·朴光佑 등이 그 밑을 받치면서 공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림계 인물의 진출에는 己卯人 일부도 포함되어 재등용 되고 있었는데, 이는 이후 趙光祖를 비롯한 사림파의 복권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만든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호전된 분위기 속에서 사림계의 대간 박광우·곽순 등에 의한 조광조의 복직 상소가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종이 “가볍게 의논할 수 없는 重難한 것”이라 하여 단안을 내리지 못하다가 죽음의 임박한 시기에 大赦 과정에서 급변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조광조 등 기묘인의 복직과 현량과의 복과 및 급제자의 등용이 성취되었다. 이는 이 시기 사림파의 성장

과 무관하지 않다.¹⁾

그러나 명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상황은 급변하여 외척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대표적인 외척은 章敬王后 소생의 인종을 지지했던 尹任을 중심으로 大尹과 文定王后 소생의 慶原大君을 지지하는 尹元老·尹元衡 형제를 중심으로 小尹이었다. 이 양자간의 갈등은 金安老 집권기부터 있어 왔으며 중종 말기에는 經筵석상에서 논의될 정도로 표면화되었다. 이에 중종은 대운에 비중을 두면서 양 세력을 조정하려 하였지만 성과를 보기도 전에 사망하였고 이후 이러한 대립은 인종의 즉위로 대운이 정치적 우세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문정왕후의 지원을 받은 소윤세력 또한 만만치 않아 대운·소윤의 정치적 대립은 계속되었다. 이 대립은 인종이 일찍 병사하고 12세의 어린 명종이 즉위하면서 격화되었다.

명종 즉위초는 인종대와 마찬가지로 대운이 약간의 정치적 우세를 지니면서 소윤을 견제했던 시기였다. 또한 기묘사화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 중종 말기부터 정계에 재등장하여 명종초에는 상당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던 士林派도 명분과 정통을 강조하면서 심정적으로 대운을 지지하며 소윤의 활동을 견제하려 하였다. 이는 즉위 직후의 院相에 대운계 및 사림계 인물이 임명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으며, 또한 윤원로 탄핵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잘 나타난다.²⁾

여기에 대해 소윤은 문정왕후를 등에 업고 훈구대신과 결탁하여 반격을 개시하는데 처음에는 양사를 통해 이들을 탄핵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양사에 포진해 있던 執義 宋希奎, 司諫 朴光佑 등을 비롯한 사림과 계열의 완강한 반대로 여의치 못하자 문정왕후의 밀지를 통한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에 다음날 兵判 李芑, 知中樞府事 鄭順朋, 工判

1) 중종 후반기의 정국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金宇基, 〈朝鮮 中宗後半期の 威臣과 政局動向〉(《大丘史學》 40, 1990).

李秉然, 〈中宗・明宗代 權臣・威臣政治의 推移와 晦齋의 對應〉(《대동문화연구총서》 11, 성균관대 출판부, 1992).

2) 명종 연간의 정국동향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로는 다음의 글들이 있다.

金宇基, 〈朝鮮 明宗代의 政治勢力과 政局動向〉(《朝鮮史研究》 2, 1993).

李宰熙, 〈朝鮮 明宗代 ‘威臣政治’의 전개와 그 성격〉(《韓國史論》 29, 서울대, 1993).

許磁, 戶判 林百齡 등이 직접 윤임·유관·유인숙 등 3인의 처벌을 주청하고, 중신들이 忠順堂에 모여 그들의 치죄를 논의하였다.³⁾ 그에 따른 논의 결과 윤임은 遠方竄逐, 유관은 파직, 유인숙은 遞差되는 것으로 각각 형량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죄목의 모호함과 內旨를 승정원에 보내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로 사림들의 강력한 반대를 야기시켰다. 양사에서도 집의 송희규, 사간 박광우 등이 중심이 되어 이 점을 논박하였다. 특히 헌납 白仁傑은 강경한 언론을 구사하며 그 부당성을 통박하였다. 이는 척신세력을 자극하여 명종 즉위년(1545) 8월 28일 정순봉이 “宗社를 傾覆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죄명을 언급한 상소를 올림으로써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었다.⁴⁾ 이어과는 이들과 관련된 사람과 인사로까지 확산되었다.⁵⁾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權機는 유관·유인숙의 억울함을 극력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고, 정순봉은 이에 맞서 권벌을 護逆으로 몰면서 더 엄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에 중신들이 다시 의논하게 되고 그 결과 결국 윤임 등 3인은 강경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賜死로 결정되었다.

을사사화로 피화된 사람과 계열의 인물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賜死：柳灌(斬), 柳仁淑(斬), 羅湜, 李震

杖死：李輝(斬), 郭珣, 成遇, 朴光佐, 鄭希登

流配：羅叔, 鄭源, 李若海, 沈荅, 鄭惟沈, 鄭滋, 成子澤, 金石諸, 李首慶, 成世昌,

韓淑, 韓樹, 金振宗, 李文樅

削奪官爵：權機, 林亨秀, 盧守愼, 丁橫, 李天啓, 權勿, 李湛, 愼居寬

罷職：柳希春, 宋希奎, 白仁傑, 閔起文, 宋麟壽, 李震, 柳貞, 李燭, 安懿, 柳貞

사화 주동세력인 소윤세력과 훈구 대신은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공신 책봉에 나섰다. 이에 이기·윤원형 등은 성종대 佐理功臣의 예에 따라 공신책록을 서둘러 이기·정순봉 등 처음 윤임 등의 일을 직접적으로 제기

3) 《明宗實錄》권 1, 명종 즉위년 8월 임자.

4) 《明宗實錄》권 1, 명종 즉위년 8월 무오.

5) 을사사화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禹仁秀, 〈朝鮮 明宗朝 衛社功臣의 性分과 動向〉(《大丘史學》 33, 1987).

申解淳, 〈官僚間的 對立〉(《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77).

한 자들을 衛社功臣 1등에, 그리고 충순당에 참여한 중신들은 거의 모두 2·3등 공신에 책록하였다. 이러한 공신책록은 얼마간의 개편을 거쳐 9월 15일 총 28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확정된 공신들에게는 토지·노비 등이 차등 있게 지급되었고 또한 加資되는 혜택도 주어졌다. 이러한 공신책록이 진행되는 것과 병행하여 사화의 피해자는 늘어났다. 더구나 9월 1일 경기감사 金明胤이 桂林君 瑠·鳳城君 阮을 역모로 고변한 사건에⁶⁾ 사림파가 관련됨으로써 피해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위사공신은 책록 초기부터 그 구성의 다양성으로 공고성이 약하였고 또한 1등인 임백령·정순봉 등 주도 공신의 일부가 초기에 사망하면서 강력한 세력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閔齊仁·李彦迪·申光漢·宋麒壽 등 사림계 인사가 단순히 충순당의 의논에 참여하였다는 것으로 공신에 임명됨으로써 공신 주도의 정국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을사사화 그 자체가 정통성이 결여된 명분이 없는 사건이어서 공신의 비정당성이 지적되고, 또한 原從功臣 책록에는 양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는 등 비판적 여론도 비등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신세력들은 정국을 계속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먼저 《武定寶鑑》을 편찬하여 을사사화와 공신책록의 정당성을 재천명하기도 하고 몇몇 공신을 추록하여 보강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대세력을 철저히 탄압하는 강경책으로 나아갔다. 이에 따라 사림파의 피해는 점차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 良才驛壁書事件(丁未士禍)이다. 이 사건은 명종 2년(1554) 9월 부제학 鄭彦懲이 양재역의 벽에 쓰여 있던 “女主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조정에 알리자 공신들이 이를 구실로 을사사화때 잔존한 사림에게 가죄한 사건이었다.⁷⁾ 이때 송인수·이언적·유희춘·노수신 등이 피화되었다.

이후에도 명종 3년 2월에는 을사사화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續武

6) 《明宗實錄》 권 2, 명종 즉위년 9월 신유.

7) 《明宗實錄》 권 6, 명종 2년 9월 병인·정묘·기사.

定寶鑑》편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史官 安名世 등이 이기 등의 죄악상을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발견되자 안명세·趙璞·孫弘積 등 사림파에게 위해를 가하였다.⁸⁾ 명종 4년 4월에는 李若氷의 아들 洪南이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寧越에 귀양가 있던 중, 윤임의 사위인 아우 洪胤이 주상을 연산군에 비유하여 비방하고 충주 거주인을 규합하여 역모를 꾀했다고 고변함으로써 옥사가 이루어져 충주 일대가 텅 비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⁹⁾ 이처럼 집권세력은 정국운영에 반대하는 세력을 철저히 제거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명종 초기의 정치세력은 문정왕후를 정점으로 小尹 戚臣系·훈구계·사림계 등 매우 다양하였지만, 사림계쪽은 사화가 연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그 중심 세력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화가 파급되는 타격을 입게 되어 정국운영의 핵심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다만 소윤 척신계와 훈구계가 주도한 초기 정국에서 일부의 온건한 사림계 인물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건의 공명정대한 처리, 피화인의 축소 등을 주장하면서 公論을 부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집권세력의 이러한 온건한 사림계 인물에 대한 포섭은 정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훈척세력이 자기들 중심의 정국운영에 있어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집권의 명분을 보완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인 현실인식 태도가 훈척세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사림계는 비록 사화 초기에 그 일부가 소극적으로 構禍에 참여하고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공신에 녹훈되기도 하였지만, 이후의 정국운영에서는 그들과 거리를 두면서 나름대로 공론을 부지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훈척세력은 자기들의 정국운영과 관련하여 사림계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異說을 제기하는 등 방해가 되자, 그들을 공격하여 定配 또는 賜死시키고 削勳하였던 것이다. 허자·민제인·이언적 등은 공신책록 후 곧바로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삭훈되었던 것이다.

소윤 척신계는 대부분 왕실 및 문정왕후와 혈연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정

8) 《明宗實錄》 권 7, 명종 3년 2월 기미·경신·신유·을축.

9) 《明宗實錄》 권 9, 명종 4년 4월 정사 및 5월 경인.

치적 입장에 동조하는 인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훈구계와 결탁하여 사화를 주도하면서 정국을 장악하고 있었다. 윤원형·원로형제, 尹仁鏡·尹漑·韓景祿·尹敦仁 등이 중심인물이다. 이기·임백령으로 대표되는 훈구계는 중종말부터 나타난 사림과의 성장에서 오는 실세를 대·소윤의 대립을 이용하여 사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만회하려 하였다.¹⁰⁾ 특히 이기는 당시의 공론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알고 사림계 인물의 제거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훈척계 공신세력은 몇 차례에 걸쳐 공신을 추록하는 등 자파세력의 안정화를 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훈척세력 중에서도 자기 도태가 이루어졌다. 먼저 명종 원년(1546)에 병조좌랑 尹春年의 탄핵으로 윤원로가 자원부처의 형식으로 안치되었다.¹¹⁾ 윤원로가 소윤계의 핵심이자 문정왕후·윤원형의 동기이고 탄핵을 제의한 윤춘년이 再從弟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소윤 척신계 내부의 갈등의 표출이었다. 윤원로 이외에도 陳復昌·李無彊·韓智源 등에 대한 탄핵도 계속되었다. 특히 이들 자파세력을 도태시킬 때 사림과의 공론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시기 훈척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림과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잔존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기 정치적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후의 사림과의 재성장애 중요한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기 분열과 자기 도태의 과정을 거치면서 집권세력은 윤원형을 중심한 소윤 척신계와 이기로 대표되는 훈구계열의 두 세력을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며, 이들 두 세력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훈척세력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확보하면서부터 두 세력은 분열상을 보였다. 그 분열은 정국의 주도권 장악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국은 이기와 윤원형이 함께 주도하고 있었지만 윤원형이 상대적으로 젊은 40대의 나이이고 또 외척이라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반해, 당시 훈구계는 일찍부터 정계에 등장하여 축적된 경험이 있었고 또한 사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는 것이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기는 위사1등공신에 책봉됨을 계기로 좌의정에 봉립되면서 실질적으로 의정부를 주도하였다. 그는 淸原尉 韓景祿을 통하

10) 이하 서술은 金字基, 앞의 글(1993) 참조.

11) 《明宗實錄》권 3, 명종 원년 3월 계유.

여 궁중과 일정한 연결을 가지면서 “조정의 관작은 대개 그의 門에서多出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¹²⁾

그러나 이러한 이기의 권한 강화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즉 사회이기의 고변은 문정왕후의 밀지를 받고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명종 초기 정국의 주도권은 위사공신 집단보다는 문정왕후와 동모제인 윤원형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윤원형을 중심한 소운 척신계는 이러한 이기의 권한 강화에 불만을 가지면서 그의 견제에 나섰다. 당시 소운 척신계는 이기의 권한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그가 “功을 믿고 驕恣하며 탐독을 행하고 또한 권력을 專擅한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하고 좌의정에서 체직시켰다.¹³⁾ 그러나 당시는 척신계가 완전히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고 단지 타격을 주는 정도로만 그쳤다. 이후 소운 척신계는 서서히 훈구세력을 약화시키면서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기는 체직 후에도 소운 척신의 필요성에 의하여 豊城府院君으로 政事に 계속 참여하였으며 이듬해 이흥운의 옥사사건을 계기로 영의정에 복직되었다. 그러나 복직된 지 얼마 후에 중풍으로 쓰러져 명종 7년 4월에 병으로 사망하게 되자 위사공신집단은 결정적으로 쇠퇴하게 되었고, 이후 홍언필·임백령·정순봉 등 훈구대신들의 잇단 병사로 훈구세력은 구심점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의 정국은 윤원형을 중심한 소운 척신계 지배체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윤원형은 銓曹인 이조·병조의 판서, 의정부와 중추부의 직임을 주로 역임하면서 당시 정국에서 중요 사안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세력의 적극적인 후원자요 배후자인 문정왕후는 명종 20년 사망하기까지 절대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이 시기 정치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척신 지배체제는 沈連源·沈通源 등 또 다른 외척세력이 가세함으로써 그 체제는 더욱 굳어졌으며 장기화의 틀을 마련하였다. 명종비의 조부인 심연원은 명종 3년부터 13년 병사할 때까지 3정승을 두루 역임하면서 윤원형의 정국운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12) 《明宗實錄》 권 10, 명종 5년 7월 병오.

13) 《明宗實錄》 권 7, 명종 3년 4월 갑자·정묘.

이 시기 윤원형을 중심한 소윤세력은 혈연관계의 인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윤원형이 정국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면서 자발적으로 접근하였던 자들이었다. 특히 윤원형에 있어서 궁중에서의 후원자가 문정왕후라고 하면, 그의 장기간에 걸친 권력 행사에 관료로서 가장 큰 밑받침이 된 것은 尹春年이었다. 그는 윤원형과 재종 사이로 명종초에 윤원로를 탄핵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후 윤원형 독주 체제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편 당시 윤원형은 자파세력의 저변 확대 및 지지기반 강화를 위해 신진세력도 포섭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들 신진세력 중에는 金弘度·金蚡 등과 같은 사림파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인물도 일부 포함되고 있었다. 이는 선조대 동서분당을 야기한 金孝元이 젊었을 적에 윤원형의 집에 출입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¹⁴⁾ 이것은 이들이 척신지배하에서 공론을 부식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의 사림과 진출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척신계의 입장에서도 시대적 대세였던 사림파의 성장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나마 포섭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소윤세력은 언관을 이용하여 반대세력을 제거함과 동시에 의정부와 육조를 바탕으로 정국을 계속 주도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크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는 없었다. 다만 문정왕후가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아래 명종 5년(1550) 禪敎兩宗과 禪科를 복설한 것, 內需司 내시에게 堂上印을 만들어 준 것이 문제가 될 뿐이었다. 이 두 문제는 명종대를 통틀어 가장 집요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으나 결국 문정왕후가 죽은 후에야 혁파 내지 폐지되었다.

이와 같이 윤원형을 중심으로 하는 소윤 척신 지배체제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가는 명종 8년 7월에 명종의 나이가 20세가 됨에 따라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명종의 親政이 시작되었다.¹⁵⁾ 이 조치는 기본적으로 왕이 이미 20세의 성인이 되어 수렴청정의 명분이 없어졌다는 이유 때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8년간의 수렴청정을 통해 반대세력을 어느 정도 제거하여 지배체제가 안정되었고, 또한 국왕도 자기의 영향력하에 둘 수 있다는 판단이 섰

14) 《黨議通略》宣祖.

15) 《明宗實錄》권 15, 명종 8년 7월 병진.

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정국도 왕이 직접 정치에 임했지만 실제로는 문정왕후-윤원형 체제가 계속되었다.¹⁶⁾

한편 모후의 聽政에서 벗어나 친정에 나선 명종은 차츰 독자적인 정국 운영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명종의 입장에서 왕권을 능가할 정도의 권력을 가진 척신의 존재가 부담스러웠고 이에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했다. 그것은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과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나 대응세력으로서의 자과세력 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다.¹⁷⁾

명종 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오면 명종의 독자적인 권한 행사의 의도와 맞물려 윤원형의 위치에도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명종 10년 사헌부에서 윤원형과 가까운 인물인 韓智源을 탄핵한 것이나, 12년에 신진사류 김규·김홍도·金繼輝 등이 윤원형이 친권하여 일으킨 폐단을 논핵하려다 중지한 일은 그 한 예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들이 윤원형의 사주에 의한 金汝孚·李銘 등의 논핵을 받고 定配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한편 이와 함께 명종은 윤원형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독자적 세력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통해 정치세력간의 균형을 꾀하고 그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그 결과 중전의 외숙인 李樸이 적임자로 주목되었다. 당시 이량이 윤원형의 대응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명종비인 仁順王后의 친정인 沈氏 집안의 도움이 컸다. 심씨 집안은 중종 37년(1542)에 沈綱의 딸을 경원대군에게 출가시킴으로써 왕실과 연결되었으며 이후 인순왕후의 조부인 沈連源이 衛社功臣 3등에 추록되는 등 크게 번성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윤원형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형편의 심씨 집안이, 명종이 소윤세력에 대응할 세력을 찾고 있을 때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그들의 인척이 되는 이량을 추천하였다. 중전의 친족 가운데는 심연원 외에도 沈逢源·沈通源 등이 있었으나 공론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명종은 아직 현달하지 않았고 또한 독자적인 세력이 없는 이량을 택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량은 沈家 세력과 국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급성장하여 입사한지 몇 년만에 政卿의 지위에 오를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갔으

16) 金宇基, 앞의 글(1993), 19~22쪽 참조.

17) 金宇基, 위의 글(1993), 25~35쪽 및 李宰熙, 앞의 글, 74~92쪽 참조.

며, 이를 바탕으로 지지세력을 규합해 나갔다. 명종의 이량 발탁은 처음에는 각관의 선임자들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후에도 명종은 그의 진출에 특별한 배려를 하였다. 한편으로 명종은 이량과 연결될 수 있는 세력의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러한 명종의 뜻을 헤아려 이량세력의 급 성장에 도움을 준 인물은 심통원이었다. 그는 이조판서가 된 후 이량계 인물을 대량 삼시에 포진시켜 세력 확장을 도왔다.

이량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은 혈연적 요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세력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으로 이 세력 중에는 소윤세력 중 이탈한 인물이 보이는 등 각자의 현실 대응의식에 따라 형성된 점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구성된 이량세력은 자파의 세력 확대를 위해 먼저 인사권의 장악에 나섰다. 이량의 정치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종 14년(1559)부터 몰락한 명종 18년까지 人事 銓衡의 책임을 맡고 있는 吏·兵曹 판서직에 있었던 인물을 보면 이량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량 자신도 명종 18년 이조판서에 취임하여 銓注權을 행사하였다. 한편 이량세력은 인사 행정의 실무자인 銓郎職에도 자파세력을 진출시켜 보다 완전한 인사권의 장악을 시도하였다. 이는 이량 자신이 전랑이 되려고 한 것,¹⁸⁾ 자기 아들인 李廷賓을 전랑으로 임명하려 한 것, 아들의 체직시 아들 친구인 柳永吉 등을 후임으로 하려고 한 것¹⁹⁾에서도 확인된다. 이량세력의 이러한 노력은 공론을 내세우는 朴素立·尹斗壽 등 사림계 전랑의 반대로²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의 인사권 장악을 위한 노력의 일단은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사권의 장악을 토대로 이량세력은 자파세력을 言官職에 진출시켰다. “이 때 이량의 권세가 날로 치성하여 侍從·臺諫이 모두 그의 문하에서 나왔다”²¹⁾라는 표현은 그런 현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시기 대표

18) 《明宗實錄》 권 29, 명종 18년 7월 무자.

19) 《明宗實錄》 권 29, 명종 18년 8월 을축.

20) 《明宗實錄》 권 29, 명종 18년 7월 무자.

21) 《明宗實錄》 권 27, 명종 16년 윤5월 정유.

적인 이량세력은 심통원을 비롯하여 金明胤·鄭士龍·元繼儉 및 언관으로 李彦忠·李重慶·尹百源·高孟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량세력은 전량과 언관 체제의 확보를 통한 정국 운영을 구사하였다. 이는 소운세력이 政曹 중심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려 한 것과는 상반되며, 오히려 전량과 언관을 이용하여 재상권을 견제하면서 권력 구조의 균형을 꾀하려한 사림과의 정국 운영 방식과 유사하다.²²⁾

그러나 이러한 이량세력이 추진한 정국운영 방식은 반대세력인 소운세력이 정조를 장악하고 있고 또한 사림계의 반대로 전량직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형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어떻든 이러한 정국운영 방식이 이 시기에 나타난 것은 전 시기보다는 한 단계 진전된 정치운영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보여지며 또한 여기에는 이 시기 사림과의 성장이라는 역사적 추세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량세력의 급속한 세력 강화에 대해 윤원형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이량세력의 성장으로 상대적으로 힘이 약화된 소운세력은 세력 만회를 위한 노력으로 왕실과 혼인을 시도하였다. 윤원형과 인척관계에 있는 黃大任의 딸을 병이 있는 것을 숨기면서까지 세자빈으로 삼아 후일을 기약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문정왕후의 절대적 영향력하에 유지되었던 소운세력의 권력기반의 취약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소운세력은 이량세력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윤원형과 이량, 양세력간의 갈등은 명종 16년에 집중적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이 문제는 소운세력과 이해관계가 걸린 문정왕후가 개입함으로써 명종도 일시적으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명종은 어쩔 수 없이 이량을 평안도 관찰사로 出外시켜 그 세력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윤원형은 이 때를 반격의 기회로 삼아 이량세력을 공격하였으나 이량은 곧 바로 京職에 복직하는 등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기에는 이량세력을 통해 소운세력을 견제케 함으로써 정치세력간의 균형을 통한 왕권의 강화와 안정을 꾀하려는 명종의 의도가 크게 작용하였다.

22) 金宇基, 앞의 글(1993).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윤원형일파에 대한 대응세력으로서의 위치를 넘어서 이량의 세력 강화는, 양자의 균형에서 왕권 강화를 노리던 명종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었다. 그리하여 명종은 정국의 균형적인 안정을 위해 이량을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던 중, 이량이 그들의 정국운영에 걸림돌이었던 신진사류의 영수인 朴素立·尹斗壽 등을 제거하고 사림의 중진인 姜士尙·朴應南 등을 지방으로 좌천시켜 확고한 위치를 잡으려는 계획을 갖자 이를 구실로 沈義謙의 협조로 홍문관을 이용하여 이량을 탄핵 실각시켰다.

2) 척신세력의 약화

윤원형은 李樸을 제거한 뒤 자신의 딸을 德興君의 아들과 혼인시켜 명종 사후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려 하였으나 명종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으며, 또한 당시 이조판서였던 權輶을 자신 편으로 끌어 들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윤원형은 결국 자신의 권력의 배경이 되었던 문정왕후의 죽음과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명종 20년(1565) 4월의 문정왕후의 죽음은 훈구세력이 역사 무대에서 점차 사라지고 사림세력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 16세기 역사의 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정치세력의 획기적인 교체를 가능케 하였던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시기의 시대적 대세였던 사림세력의 성장의 결과였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문정왕후의 죽음이었다. 그녀는 명종의 즉위와 함께 수렴청정을 시작하였고 국왕의 친정이후에도 소윤세력의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국을 주도해 간 실질적인 실력자였다. 윤원형이 문정왕후가 6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사후의 정국을 걱정할 정도로 그녀의 정치적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윤세력의 몰락의 조짐은 이미 문정왕후의 사망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소윤세력은 사림계의 공론에 입각한 정치를 묵살하고 政曹大臣 중심의 지배체제를 바탕으로 인관을 이용한 반대세력의 탄핵과 같은 강압적 방법으로 정국을 운영하면서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비공론성은 전랑직을 중심으로 하는 신진세력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소윤세력은 신진세력의 비판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견제할 수는 있었으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사림파의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막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공론에 입각한 그들의 공격으로 점차 세력이 약화되어 갔다. 한편으로 대응세력으로 나타난 이량세력이 왕권을 배경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소윤세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훈척세력은 관권을 이용한 사적인 이익 추구와 인사권의 전횡으로 민생의 파탄과 관료 사회의 기강 문란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 훈구파에 의한 사치 생활을 위한 축재 행위는 백성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국가의 수취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권세가에 흡수 또는 유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유망민 중에는 일부는 도적이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명종 연간에는 많은 민란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오래 지속된 난은 1559년에서 1562년에 걸쳐 지속된 임격정의 난이었다. 이 난은 황해도로 중심으로 경기·평안·강원도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이 난의 원인은 황해도 일대의 지역민이 공동으로 이용하였던 갈대밭을 권세가들이 개간을 구실로 소유권을 장악함으로써 야기되었다. 이 난은 진압되기는 했지만 바로 훈구정권의 몰락과 사림정권의 등장으로 연결되었다. 당시 이러한 사회경제적 모순은 농촌사회에 기반을 둔 사림세력이 등장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사림세력은 이러한 국가 권력을 이용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권신들의 전횡을 비판하면서 성장하여 갔던 것이다.

문정왕후 사후 이러한 훈척세력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것은 사림계 言官과 지방의 유생들이었다. 이들 사림세력들은 문정왕후가 사망하자 곧 바로 척신세력의 상징이었던 普雨와 윤원형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였다. 보우에 대한 탄핵은 유생의 空館사태까지 불러온 이후 결국 6월에 제주 유배로 결말이 나고, 곧이어 8월에는 대사헌 李繹, 대사간 朴淳을 중심으로 한 양사에서 영의정 윤원형을 탄핵하였다.²³⁾ 이는 윤원형이 宗社에 功이 있고 문정왕후의 동기라는 이유로 윤희받지 못하다가 결국 削奪官職 放歸田里로 처리되었

23) 《明宗實錄》권 31, 명종 20년 8월 정묘.

다.²⁴⁾ 윤원형 치죄 이후 소윤세력이었던 尹春年·黃大任 등이 정계에서 축출되면서 소윤세력은 정계에서 사라졌고 따라서 정상적인 사림정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문정왕후를 정점으로 척신세력에 의해 운영되던 정국은 문정왕후의 사망과 윤원형의 축출 이후 사림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척신세력의 잔재 청산은 사적으로 연결된 국왕과 권신과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단번에 이 모든 것을 해소할 수는 없었다. 권신과 밀착되었던 대부분의 관료들은 여전히 관료사회 내에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궁실과도 관련된 권신들의 물질 기반은 윤원형이 축출된 이후에도 쉽게 제거되지 못하였다. 실제로 당시 윤원형과 연결되어 거론된 인물은 윤춘년 등 소수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윤원형의 집권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장기간 지속되면서 직접·간접으로 관계가 없는 인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명종 또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母后의 영향력하에 있었다고는 하나 척신정치의 형성과 전개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척신정치의 청산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사림계는 윤원형 제거 이후 계속해서 20여 년간 지속되었던 척신정치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을 표면화하였다. 이를 위해 일부이긴 하지만 을사피화인에 대한 신원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盧守愼·柳希春·白仁傑·李元祿 등 을사피화인에 대한 減刑·放還·職牒還給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을사인의 신원은 과거 정치의 청산이라는 면과 함께 사림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정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關西지방 船運의 금지, 內需司 印信의 제거, 禪敎 兩宗의 혁파, 海澤 折受의 금지²⁵⁾ 등으로 권신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들도 혁파하였다.

24) 《明宗實錄》권 31, 명종 20년 8월 신묘.

25) 《明宗實錄》권 31, 명종 20년 12월 계미.

《明宗實錄》권 32, 명종 21년 4월 신미·경진·신사.

《明宗實錄》권 33, 명종 21년 6월 정묘.

그러나 이로써 훈척세력이 완전히 몰락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윤원형 사후에도 왕권과 결부되어 다시 조정에 복귀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당시 명종은 문정왕후 사후 급격히 약화되어 가는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들을 다시 등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문정왕후 사후 尹百源·李樸을 近道로 移配하라는 傳旨를 내리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량의 무리가 심통원의 도움을 받아 放還을 꾀하고 또한 이들이 다시 敍用될 것이라는 소문이 과다해지면서 사림계를 불안케 하고 있었다.

소윤세력의 몰락 이후 정국은 국왕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정계는 크게 沈通源으로 대표되는 沈家勢力과 사림과의 양체제로 개편되었다. 심가세력은 윤원형·이량으로 대표되는 척신세력이 제거된 상황에서 그 공백을 메워 나갔다. 이들은 앞의 두 세력의 몰락을 정치적 교훈으로 삼아 윤원형이나 이량처럼 擅權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보다 강해진 왕권의 견제하에 조심성을 띠었다.

한편 심가세력 중에서 명종과 연결되어 이량을 제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沈綱·沈義謙父子는 이후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물론 이들 부자는 당시 사류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등 이전의 척신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심강의 父로 英의정을 역임한 沈連源은 金安國의 문인으로 친사림적인 인물이었으며, 심강도 명종 16년(1561) 임백령의 시호문제로 朴淳과 朴謹元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보호한 바 있었다. 심씨 외척은 윤원형·이량 등과 비교하여 그 권세가 약화되어 조심하는 면이 있었다고 하나, 그 세력이 커지는 것과 함께 사림세력의 그들에 대한 논핵은 그만큼 어려워졌다. 특히 仁順王后 심씨와 심의겸은 명종 후의 儲副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후 그들의 영향력은 선조 연간 사림정치 시대까지 이어졌다.

3) 사림의 득세

명종 연間は 전체적으로 보면 사림과의 실세기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명종말 선조초의 사림정치 시대의 막을 여는 시기이기도 하다.

기묘사화 이후 사림은 크게 실세하여 상당 기간동안 위축되었다가 이후 중종말부터 정계에 재등장하였지만 명종초의 거들된 사화로 또 다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사림은 중앙 정계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별다른 영향력을 가질 수 없었지만 일정하게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집권세력의 집권의 정당성 확보라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사림과의 정치적 역할이 잔존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실제로 이 시기 훈척세력이 자파세력의 일부를 도태시키는 과정에서 사림의 공론을 일정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도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온 조치였다.

이후 소윤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시점에도 일부 새로운 사림파가 계속해서 등용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사림파가 척신집권하에서도 계속 정치세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명종 친정 이후 소윤세력과 이랑세력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시기에 오면 사림파의 존재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될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 예컨대 이 시기 사림세력은 이랑이 그의 아들인 李廷賓을 전랑으로 천망하려 하자 이를 적극 반대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림파의 정치적 성장과 더불어 이 시기에 오면 조광조에 대한 인식도 전시대에 비해 다소 양보적으로 바뀌고 있었고²⁶⁾ 《小學》과 《近思錄》 등 사림파가 중시했던 책들이 다시 강조될 정도로 사림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물론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사림이나 을사피화인에 대한 본격적인 사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재변·왕실의 경사 등으로 을사피화인에 대한 疏放이나 죄의 경감이 조금씩 나타났다는 것도 이 시기 사림파의 정치적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비록 吏曹에 의해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成守琛·曹植 등 遺逸之士를 除職하도록 종용하게 되었으며, 許曄·尹根壽 등은 국왕의 「爲學」과 「獎學」을 논변하면서 조광조의 무죄를 과감히 변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당시 사림은 중앙정계에서 뿐만 아니라 향촌사회에 있어서도 착

26) 李秉然, 〈朝鮮前期 支配勢力의 葛藤과 士林政治의 成立〉(《民族文化論叢》 11, 嶺南大, 1990).

실한 재지적 기반을 다져 나가면서 학문적 역량을 축적해 나갔다. 실제로 이 시기 훈구파의 계속되는 탄압 속에서도 그들의 公道論의 정당성은 그대로 살아 이것이 학문적인 면으로 승화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李滉의 학문이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²⁷⁾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문적 발전에 따라 사림의 수적 확대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 성리학파의 학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분위기가 명종 20년(1565) 소운 척신세력의 몰락 이후 사림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단서가 되는 것이다.

이 시기 재지 사림파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서원의 건립 활동을 들 수 있다. 서원은 선조의 유향소 설치, 성종대의 유향소 복립운동, 중종조의 향약 보급운동 등 사림의 향촌 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사림의 기구였다. 이러한 서원이 훈척 집권하인 명종대에 속속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은 서원 자체가 교육기관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이 시기 사림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중종 38년(1543) 풍기군수 周世鵬이 白雲洞書院을 세운 것을 효시로 사림파의 서원 건립 활동은 활발한 진전을 보여 명종대 20여 년간의 척신정치 아래서도 18개 곳이나 세워지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서원의 건립은 향촌사회에 재지사림의 성장을 촉진시켰으며 이는 나아가 이 시기 사림의 학파의 성립으로까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척신정치가 지속되었던 명종 20년까지도 사림파는 그 맥이 완전히 끊긴 것이 아니었으며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자기 노력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이미 거의 전국적으로 유생들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명종대 대표적인 사림파의 인물로는 영남의 李滉과 曹植 및 호남의 泰仁에 李恒, 長城에 金麟厚, 羅州의 奇大升, 海南의 柳希春 등이 있었고, 또한 조광조의 문인인 成守琛·白仁傑 등, 서경덕 문인인 朴淳·許曄 등이 중앙정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명종대에 활약했던 사림파의 중요 인물로는 朴謹元·尹斗壽·朴素立·尹仁涵·金弘度·金蚪·金繼輝·朴啓賢·李希顔·成悌元·趙昱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후일 퇴계학

27) 李泰鎮, 〈士林과 書院〉(《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77).

파와 남명학파로 발전해 나가는 이황과 조식은 사림의 뿌리로 인식될 정도로 사림과 내에서의 위치가 절대적이었다.²⁸⁾ 이들은 선대 이래의 확고한 사회 경제적 기반과 선배학자들의 학문적 업적을 배경으로 향촌에서 師友門人 관계를 형성하여 강력한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이황은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사액받는 등 서원 창설과 보급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이 시기 사림의 성장과 확대는 영남을 비롯하여 충청·전라·경기 등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명종 연간 정국에 대한 당시 사림계쪽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척족정치는 용인할 수 없다는 반척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달랐다. 척족정치에 과격하게 반대하다가 귀향가거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온건 타협적인 노선을 견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당시 사림중에는 무오·기묘·을사사화를 거치고 또한 척족정치가 장기화되자 과거를 통해 관인이 된다는 생각을 단념하는 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아예 산림처사로서 일생을 보낸 자들도 많았다. 당시의 정국에 대한 사림파의 현실 대응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이황이 명종의 잦은 정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계로의 진출을 기피했던 점이나, 조식이 문정왕후와 소윤 집권에 비판적인 상소를 올렸다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²⁹⁾

이 시기 재지 사림세력의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명종 20년(1565)의 「請斬普雨疏」이다.³⁰⁾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사림세력은 명종조 훈척 정권하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들이 주장하는 공론정치가 당시 정국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특히 각 지방의 유생들의 성장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오면 그 이전에는 없던 이른바 退溪學派·南冥學派와 같은 학파가 형성되고 각 읍마다 향교·서원 및 동성촌의 문중이 형성되는 등 사림의 기반이 점차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도처에 사림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儒疏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28) 李樹健, 〈南冥과 南冥學派〉(《民族文化論叢》2·3, 嶺南大, 1982).

29) 《明宗實錄》권 19, 명종 10년 11월 경술.

30) 李樹健, 〈正祖朝의 嶺南萬人疏〉(《嶺南史學》창간호, 1985), 309~311쪽.

명종 20년 4월초에 문정왕후가 죽자 곧 언론 三司가 문정왕후와 밀착해 있던 보우의 처벌을 주청한 데 이어 관학생들의 「請斬普雨疏」가 진후 30차례나 상정되었고 끝내는 空館(捲堂)에 들어갔다.³¹⁾ 이때 관학에서 유생을 동원하여 집단 상소를 올리게 하고 공관까지 감행케 한 데에는 8도 중 생진수가 가장 많았던 경상도 출신 유생이 중심이 되었다. 그 다음 달에는 楊州 儒生인 生員 李思淵 등 50여 명과 開城府 유생인 생원 吳彥仁 등 40명, 忠義衛 尹義孫 등 322명의 집단 상소가 있게 되어 보우는 끝내 제주에 유배되었다. 동년 7월에 안동 유생인 생원 權審行 등 200여 명과 南原 유생인 생원 吳夢良 등 200명의 상소가 있고 난 후 8월에 경상도 列邑 유생을 대표한 進士 金宇宏 등 300여 명이 올린 제1차 유소가 있었다.

명종 20년 4월에서 8월까지의 각 도·각 읍별로 보우의 처단과 윤원형을 탄핵하는 유소가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올라왔다. 김우평 등의 2차 유소는 8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차에 걸쳐 도내의 列邑 유생들이 入京할 때마다 해당 고을 유생들과 합류하여 상소하였는데, 20차에 湖西·館學生들과 함께 상소를 하여 명종의 비답을 받았다.

안동의 權審行 등과 상주의 김우평 등의 영남유소는 중앙의 三司疏와 館學疏에 다소 뒤졌지만 문정왕후 사후 척신정치를 몰아내는 데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당시 조정의 언론기관과 館學에는 화담·퇴계·남명 등의 문하를 출입한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그들의 주동하에 그러한 疏章이 계속 상정되었고 동시에 諸道에 移文하여 유생들을 종용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유소는 당시 사림 주도하에 관학생과 지방 유생 및 재경 관인과 지방 유림과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공론을 바탕으로 한 반척신적 태도로 나름대로의 위상을 확보한 사림파의 정치적 영향력은 척신의 몰락 이후 을사피화인에 대한 신원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당시의 사림파는 명종 중기이래 정계에 진출하면서 활동해 온 부류와 을사사화때 피화되었다가 신원된 부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원된 을사인 대부분은 年老하여 뚜렷한 활동을 할 수는 없었으나 반척

31) 《明宗實錄》 권 31, 명종 20년 4월 신묘.

신의 입장을 견지하다 피화되었다는 점에서 사림파로서의 정당성을 갖는 반면, 명종 중기 이후 진출한 사림파는 비록 그들 나름대로 공론에 입각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척신지배하에서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순수성은 을사 피화인에 비하여 약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당시 沈家세력이 외척으로서 활동에 한계가 있었고 윤원형과 이량의 몰락이후 근신하고 있었기에 과거 정치의 청산이라는 면에서는 공론을 견지하면서 반척신의 태도를 지녔던 사림파의 입장이 더욱 정당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림파는 척신세력의 몰락 이후 그들 집권시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維新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이를 위해 사림파는 연관을 통한 對王 공세에 나섰다. 연관을 중심으로 과거의 척신정치를 청산하고 새 정치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상소가 자주 나타난 것이 그 예가 된다.

이러한 사림파의 입장에 대해 명종은 새 정치질서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감하고 있었으나 방법론적 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었다. 나아가 명종은 사림파의 성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량세력을 다시 등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한 형세에서 사림세력은 사림학자들을 기용하여 사림세력을 확장함으로써 권신들의 재진입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명종 21년(1566) 6월에는 李恒·成運·韓脩·南彦經·林薰·金範 등의 遺逸에게 6품직을 제수하여 명망있는 사림학자들을 조정에 배치하려 하였다.³²⁾ 또한 문정왕후 사후 당시 신진사류들의 종장인 이황에게 계속 召命을 내려, 이황이 명종이 승하하기 직전 상경하는 것도 이황의 重望으로 명종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게 하고 사림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것이었다.

이후 명종이 죽고 德興君의 제3자인 鈞(宣祖)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사림세력은 마침내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이후 을사사화인에 대한 본격적인 사면 등 척신정치에 대한 청산이 가속화되었다.

〈李樹健〉

32) 《明宗實錄》 권 33, 명종 21년 6월 경진·7월 무신.

2. 붕당의 출현

오랜 기간에 걸친 훈척세력과의 정치적 투쟁을 통하여 성장하여 온 사림 세력은 선조 초반에 이르러 마침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趙光祖 등의 己卯士類에 의해 주창된 이래 그들이 추구해 마지 않던 사림정치를 비로소 현실의 정치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붕당의 출현도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의 하나였다.

붕당의 출현과 관련해서는 그 배경으로 여러 가지 說이 말해지지만 현재까지의 연구수준에서 볼 때, 바로 이러한 사림정치의 구현방식과 그에 의한 정국운영을 놓고 사림사이의 의견차이와 이해관계의 대립에 따른 정치적 갈등의 결과인 사림내부의 분열이라고 하는 설명이 가장 타당한 듯하다. 그리고 붕당이 처음 나타난 이 선조 연간은 그것의 초창기여서 정국운영이 미숙하였던 탓으로 붕당간 대립의 열도가 심하고 또 분열의 양상도 지리멸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후일 인조 연간에 들어가 비로소 일정한 정치형태를 갖춘 붕당정치로 발전해 간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선조 연간 붕당의 출현에만 국한시키기로 한다.¹⁾

1) 붕당의 출현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당쟁’의 발생이란 측면에서 일찍부터 관심이 두어져왔고 따라서 이에 관해 언급한 연구가 적지 않다. 여기서는 최근에 연구된 아래의 성과를 주로 참고하였다.

이태진,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변천》(한국연구원, 1985).

구덕희, 〈선조대 후반(1594~1608) 政治體制的 재편과 政局의 동향〉(《韓國史論》 20, 서울대, 1989).

정만조, 〈16세기 士林系 官僚의 朋黨論〉(《韓國學論叢》 12, 국민대, 1989).

김항수, 〈선조 초년의 新舊 갈등과 政局動向〉(《國史館論叢》 34, 國史編纂委員會, 1992).

그런데 붕당출현에 관한 이해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史料상의 문제다. 임진왜란으로 선조 전반기의 公私文籍이 소실되어 버림으로써 《宣祖實錄》의零星한 기록에서 보듯이 사실의 파악조차 쉽지 않은데다가, 이를 보완해주는 후대의 기록들이 대부분 黨色에 따른 편파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서, 사건의 진상과 사실의 진면목을 전해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붕당 출현을 포함한 선조 전반기의 정치사 설명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료상의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1) 선조초의 정계구성과 구체제의 청산

흔히 선조의 즉위로 사림이 집권했다고 말해지지만, 사림으로 통칭되는 선조초의 집권세력 내부에는 애초부터 벼슬한 시기에 따른 권신체제와의 관련 문제나 학문적 성향의 차이로 인해 정치적 입장과 노선을 달리하는 여러 부류가 있었다. 그것은 크게 보아 중종 연간에 등과하여 이후 계속 벼슬하여 선조초의 시점에서는 고위직을 차지했으나 이미 구세대가 되어버린 부류와, 명종 이후 정계로 진출하였기에 앞의 부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진이라 할 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李浚慶·洪暹·權轍·金鎧·洪曇·李鐸 등이 손꼽힌다.²⁾ 이들은 왕실과의 연결이 없고, 또 권신에 밀착하지도 않았다는 면에서 권신이나 그 추종세력과 일단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비록 일부이기는 해도 金安國·宋麟壽 등 士林系 學統線上에 있는 인물의 문인도 있고,³⁾ 또 이준경에서 보듯이 권신체제하에서 지조를 굽히지 않고 사류를 옹호함으로써 사림의 신망을 받는 경우도 있어,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들도 사림에

2) 이들의 구체적인 면모는 다음과 같으며 선조초에 대부분 舊臣系 官僚로 구분된다.

이 름	生卒年度	문과급제연도	선조초의 관직
李浚慶	1499~1572	1531	영 의 정
洪 暹	1504~1585	1531	좌 찬 성
權 轍	1503~1578	1534	우 의 정
李 冀	1496~1572	1528	좌 의 정
閔 箕	1504~1568	1539	이조참판
金 鎧	1504~1569	1540	형조판서
元 混	1505~1588	1525	병조판서
宋 純	1493~1582	1519	한성좌윤
朴忠元	1507~1581	1531	예조판서
李 鐸	1509~1576	1535	대 사 헌
鄭大年	1507~1578	1532	병조참판
洪 曇	1509~1576	1539	호조판서
鄭惟吉	1515~1588	1538	지중추부사
鄭宗榮	1513~1589	1543	형조참판
宋麟壽	1507~1581	1534	공조판서
朴永俊	1510~ ?	1540	이조판서

3) 金安國 門人으로서 鄭順朋·李樸을 탄핵했던 閔箕와, 宋麟壽 門人이며 尹元衡을 비판한 鄭宗榮을 예로 들 수 있다.

포함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의리보다는 名利를 좇아 浮沈取容했다는 후대의 비난이 말하듯이, 권신체제를 묵인하면서 그 속에서 벼슬해 왔고 그래서 선조초에는 대부분 당상관으로서 주요관직의 우두머리와 대신직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정계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권신체제의 청산 문제에 한두 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선조초의 집권세력 안에서 因循姑息의이라고 비판받던 舊臣의 존재는 바로 이들을 가리킨다.

한편 후자는 명종 이후에 과거에 급제해 벼슬한 후진적 존재였다. 이들 중에는 徐敬德·李滉·曹植 등 당대 성리학의 종장들과 일정한 학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구신들과는 달리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상당하였고 따라서 이에 토대한 사림정치의 구현을 열망하였다. 바로 이런 면에서 그들은 조광조이래 사림의 정통적 계승자로 자처했으며, 뒤에 보듯이 선조초 이후 권신체제의 청산과 혁신정치의 실행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권신세력에 비해 흔히 신진사류로 불리던 이들 내에도 출신시기에 따라 두 갈래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명종 전반기에 벼슬길에 나왔으나 권신체제를 비판해 쫓겨났다가 후반기에 다시 기용된 朴淳·許睟·奇大升·金繼輝⁴⁾와 같은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복직된 후 주로 언관직에 있으면서 명종비 沈氏의 아우이던 沈義謙과

4)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있다(신진사류 중 선배).

이 름	生卒年度	문과급제연도	선조초의 관직
朴 淳	1523~1589	1553	대 사 헌
李後白	1520~1578	1555	병조참의
許 睟	1517~1580	1546	승 지
金繼輝	1526~1582	1549	대 사 간
奇大升	1527~1572	1558	진 한
李陽元	1526~1592	1555	도 승 지
具鳳齡	1526~1586	1556	이조좌랑
尹斗壽	1533~1601	1558	우 승 지
尹根壽	1537~1616	1558	집 의
具思孟	1531~1604	1558	이조정랑
吳 健	1521~1574	1558	정 언
沈義謙	1535~1587	1561	승 지

연결되어 명종 말년의 李樾·尹元衡 등 권신의 축출에 앞장섰다. 그래서 선조 초에는 대개 堂上官의 관직을 가지고 신진사류를 영도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다른 하나는 명종 후반기에 등과하여 선조초에 막 郎僚職에 진출하였던 李珥·鄭澈·李山海·柳成龍⁵⁾ 등 당시로서는 가장 신진기에한 관료들이었다. 그들은 권신이 제거된 이후 벼슬길에 나와서 권신체제와는 일단 무관하였기에 그것의 청산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조광조를 앞세우며 이황·조식 등을 정신적 지주로 받들고 朱子성리학에 대한 탐구와 현실에서의 실천적 적용으로서 사림정치의 구현을 신념으로 표방함으로써 사류의 본령에 충실하였다. 따라서 선조초의 시점에서 구체제의 청산과 혁신정치의 실현을 열망한 신진사류란 바로 이들을 지칭한 것이었다. 그런데 선조초에는 위의 舊臣과 新進사류 이외에 乙巳復官人이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 명종초의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20여 년의 귀양살이 끝에 정계로 복귀한 白仁傑·盧守愼·柳希春⁶⁾ 등이 그들이다. 사화로 직접 피해를

5) 이들의 구체적인 면모는 다음과 같다(신진사류 중 후배).

이 름	生卒年度	문과급제연도	선조초의 관직
李珥	1536~1584	1564	이조좌랑
鄭澈	1536~1593	1561	부교리
金孝元	1532~1590	1565	병조좌랑
金宇顥	1540~1603	1567	正 字
李山海	1538~1609	1561	이조정랑
柳成龍	1542~1607	1566	수 찬
李海壽	1536~1598	1563	부수찬
洪聖民	1536~1594	1564	수 찬
鄭惟一	1533~1576	1558	이조정랑
權德輿	1518~1591	1562	사 간
金命元	1534~1602	1561	부수찬

6) 을사복관인의 면모는 다음과 같다.

이 름	生卒年度	문과급제연도	선조초의 관직
白仁傑	1497~1579	1537	대사간
盧守愼	1515~1590	1543	부제학
柳希春	1513~1577	1538	응교
金鸞祥	1507~1570	1537	직제학
閔起文	1511~1574	1539	典翰
李元祿	1514~1574	1541	判校

입은 당사자였다는 면에서 그들은 사류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았고, 조정 상하의 두터운 신임을 얻을 수 있어서 복관되자마자 不次擢用の 특전으로 당상관에 올랐다. 그러나 그 숫자가 얼마되지 않는 데다가 개인적 성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정치적 결속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의 독자적 영향력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조초의 집권세력 내부에는 정치적 입장과 노선을 달리하는 여러 갈래의 정치세력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舊臣系가 대체로 대신급과 6조의 장·차관직을 차지하고, 신진사류와 을사복관인이 兩司와 홍문관에 다수 포진했던 이 시기의 관직참여 분포상으로 볼 때 구신계는 정국운영권을, 그리고 신진사류들은 언론권을 장악함으로써 《擇里志》에서 사람정치구조의 기본형태라고 한, 大官과 小官이 서로 維持하고 上職과 下職이 서로 견제한다는 형국을 취하고 있었다.

선조 즉위 직후 그들 사이에는 권신계의 잔존세력을 일소할 때까지 별다른 이견이 드러나지 않았다. 즉 이량·윤원형이 축출된 이후 명종비의 작은 할아버지이며 좌의정을 역임하고 물러나 藥房提調로 있던 沈通源이 권신계의 잔존세력을 규합하면서, 귀양가서 있던 이량·尹百源 등의 복귀를 획책하고, 명종의 후계자 선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함으로써 당시의 집권세력에 큰 위협이 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힘을 합쳐 명종의 발인도 하기 전인 선조 즉위년(1567) 9월에 심통원을 위시한 沈銓·鄭鑽·鄭惕·李元祐·金明胤·尹仁恕·李洪胤 등 권신의 子姪輩들을 탄핵, 정계에서 완전히 추방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선 시기의 사회에서 피해를 입었던 인물에 대한 伸冤도 함께 추진하였다. 여기서 조광조·權機·李彦迪에게 議政의 벼슬이 추증되고 위에서 말한 백인걸·노수신 등의 복관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國喪의 절차가 마무리되어 정치적 과도기가 끝나고 새 임금인 선조에 의한 정치가 본격화하여 국정운영의 방향과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여러 정치세력사이의 상이한 정치적 입장과 노선이 표면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이 때는 조광조 이래의 사림세력에 의해 추구되었던 이른바 사람정치가 다시 표방되는 추세에 있었고, 그것의 특징중의 하나가 중요한 정치사안에 관해서는 三司를 중심으로 집권세력 대

다수가 참여한 공공연한 토론과 공개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公論정치에 있었으므로,⁷⁾ 논란과 토론의 열기가 그만큼 높았을 것이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각 정치세력의 성향이 보다 분명해지며, 예컨대 그 출신으로 보아서는 구신계라고 할 李鐸이 신진사류의 옹호자로 나서는 데서 보듯이, 정치세력 상호간의 異見者들의 이탈과 취합에 따른 재편성이 수반되면서 후일의 東人·西人 朋黨 성립의 배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선조초에 조신간에 논란을 일으키고 신·구세력의 존재와 갈등을 드러나게 한 처음의 사안은 郎薦制 문제였다.⁸⁾ 낭천제란 試才를 통하지 않고 이조전랑의 천거를 통해 재주와 행실이 좋은 사류를 관직에 등용하려는 제도로 선조 원년(1568) 吏曹正郎 具鳳齡과 佐郎 鄭澈에 의해 제기되었다.⁹⁾ 신진사류에 속하는 그들이 이를 제기한 데에는 윤원형 등 권신집권 이래의 큰 폐단이었던 구신들의 청탁에 의한 인사¹⁰⁾ 배제함으로써 관료사회의 새로운 기풍을 조성함과 동시에 名節을 앞세워 혐의를 꺼리는 사람계 인물의 정계 진출로를 열어준다는 의도가 잠재되어 있었다.

이 낭천제는 구신계인 朴永俊의 뒤를 이어 이조판서가 된 李鐸이 정철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시행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구신계의 반발이 바로 뒤따랐다. 구신계로서는 그들의 기득권이 상실됨으로써 자신들의 세력기반을 약화시킬 낭천제를 그대로 앉아서 수용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祖宗의 옛제도(舊規)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면서 낭천제를 주도하는 구봉령·정철 등을 일을 꾸미기 좋아하는 무리(喜事者)로 몰아 배척하였고¹¹⁾ 구신계 인물을 이조판서로 밀어 이를 통해

7) 김 돈, 《16세기 전반기 정치권력의 변동과 유생층의 공론형성》(서울대 博士學位論文, 1993).

8) 김향수, 〈宣祖初年の 新舊갈등과 政局動向〉(《國史館論叢》 34, 國史編纂委員會, 1992). 이하의 서술에서는 주로 이 논문을 참고하였다.

9) 《宣祖修正實錄》 권 2, 선조 원년 3월.

10) 國初부터 有蔭子弟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자의 등용을 위해 四書 一經을 講試하여 初職을 주었는데 윤원형이 집권한 이후는 試講의 내용이 부실해져 집안 소식을 묻는 것으로 대신할 지경이 되므로 배움에 뜻을 둔 自好之流는 여기에 응하지 않게 되어 벼슬길이 더욱 혼탁해졌다고 한다(《宣祖修正實錄》 권 9, 선조 8년 9월).

11) 《經筵日記》 선조 2년 6월.

낭천제를 무효화하고자 하였다.

우의정 洪暹의 사촌아우로 구신계의 핵심적 위치에 서 있던 洪暹이 이탁 대신 이조판서가 된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다. 홍담은 당장 낭천제를 부정하고 인사권을 판서가 다시 행사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좌랑 정철이 낭천제를 고집하자 두 사람 사이가 매우 악화되었으며 이는 곧 구신과 신진사류의 불화로 확대되었다. 세력기반의 확보를 위한 구신과 신진사류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낭천제 문제로 표출되어 충돌하게 된 것이다. 이후 낭천제는 구신계인 朴忠元을 거쳐 신진사류의 영수격인 朴淳이 판서가 됨에 다시 부활되고 그 뒤로도 몇 차례의 폐지와 설치를 반복하지만 점차 신진사류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착을 보게 된다.¹²⁾ 하지만 이 낭천제 시행문제에서 분명히 서로간의 정치적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구신과 신진사류 사이의 대립은 바로 얼마 후에 구신계 대신들이 신진사류를 공격하는 요인이 되고 끝내 老黨과 少黨이란 朋黨명목으로까지 나가게 된다.

신·구세력간의 갈등은 선조 2년 文昭殿 논의에서 재발하였다. 문소전이란 世宗이 漢의 原廟制를 모방해 太祖와 今上의 四代祖의 신주를 모시는 祠堂을 말한다. 명종의 상을 마치고 그 신주를 문소전에 모시게 됨에 사류들은 명종초 권신들에 의해 해를 넘기지 못한 임금(未踰年之君)이므로 정통의 계승자가 될 수 없다고 하여 延恩殿에 두어졌던 仁宗의 신주도, 이번 기회에 문소전으로 옮겨 권신체제하에서 잘못되었던 명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논의를 내었다.¹³⁾ 이에 대해서는 영의정 이준경 등 대신들도 찬성하였다.

그런데 신주를 놓을 자리가 협착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구신계가 문소전 건물의 증축안을 내는 데 대해, 이때 모처럼 조정에 나왔던 李滉은 문소전의 신주설치 방향을 바꾸게 되면 남북보다는 동서가 더 넓은 문소전의 건물구조 때문에 장소협착 문제가 해결되며 古制의 원칙도 회복할 수 있다고

12) 이 낭천제는 16세기 이조전랑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만들어진 제도였다. 사림들은 自薦制를 바탕으로 이조전랑의 권한을 확대하여 權臣과 大臣들의 인사전횡을 견제해왔다(崔異敦, <16세기 郎官權의 성장과 朋黨政治>, 《奎章閣》 12, 1989). 이와같이 전랑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신진사류들은 전랑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신들의 인사청탁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13) 《宣祖修正實錄》 권 3, 선조 2년 정월.

하였다. 특히 古制 회복과 관련하여 不遷之主는 서쪽에서 동향하고 昭穆을 남북으로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번 기회에 그 동안 고제에서 어긋나게 북에서 남향하고 있던 태조의 신주와 동서로 된 소목의 위치를 바꾸자는 것이었다.¹⁴⁾ 이황의 이런 주장은 신진사류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으나 대신들을 위시한 구신세력은 세종이래 140여 년을 지켜 온 祖宗의 舊制를 바꿀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여기서 이황은 물론 그를, 士林의 宗匠으로 받들던 신진사류들은 대신들의 변통하지 않으려는 수구적 자세를 비판하고 나왔다. 더구나 이런 논의 과정에서 李浚慶이 인종을 한해를 넘기지 못한 임금임으로 그대로 연은전에 두자는 주장을 펴 사류들의 의론을 백지화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奇大升·辛應時 등은 이준경을 윤원형·李芑 등의 ‘乙巳權奸’에까지 비유하며 심하게 배척,¹⁵⁾ 구신들의 분노를 불러왔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이준경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인종의 신주를 명종과 함께 문소전에 모시게 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¹⁶⁾ 그러나 문소전 논의를 통해 사류와 구신들은 구체제의 개혁에 관한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국운영에 관한 두 세력의 방안이 근본적으로 상이함을 인식하게 되고 끝내는 정치적 충돌로 나아가게 된다.

낭관권과 문소전 논의를 거치면서 증폭된 두 세력간의 갈등은 마침내 선조 2년(1569) 5월 구신계인 김개·홍담 등에 의한 신진사류 제거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평소 유학자를 질시하고 특히 낭천제 문제로 신진사류계의 정철과 대립하였던 이조판서 홍담은 사촌형인 우의정 홍섬 및 그와 사이가 가까웠던 宋純·김개 등과 함께 신진사류를 몰아낼 생각을 하고 김개로 대사헌을 삼았다. 이에 김개는 경연에 입시한 자리에서 己卯의 禍는 浮薄之徒로 말미암은 것인 만큼 이를 거울삼아 오늘의 과격한 年少輩를 억제하고, 그들의 경망된 언동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임금을 충동하고, 南袞을 삭탈관작한 것은 잘못이라고까지 하였다.¹⁷⁾ 古制의 회복과 권신체제의 청산을 위해 혁신

14) 《宣祖實錄》 권 3, 선조 2년 2월 기묘.

15) 《論思錄》 下, 선조 2년 5월 21일.

16) 《宣祖修正實錄》 권 3, 선조 2년 3월.

17) 《宣祖實錄》 권 3, 선조 2년 4월 임진 및 6월 신사·임오.

《宣祖修正實錄》 권 3, 선조 2년 6월.

을 주장하던 신진사류를 少己卯로 지목하여 위협시하던 구신계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김개의 이런 발언에 대해 신진사류 계열의 지평 정철·좌승지 기대승·우승지 심의점 등은 즉각 반발을 보였다. 그들은 김개를 기묘사화에 빚대어 사류를 일망타진하려는 소인배라고 질타하면서 李鐸·朴淳·기대승·尹斗壽·尹根壽·정철·李後白 등 사림계 인사를 제거하려는 홍담 등 구신계 인사들의 음모가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고 역공하였다.¹⁸⁾ 이어 사류가 장악한 三司에서 김개를 탄핵, 관직에서 추방하자 불안을 느낀 홍담이 이조판서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우의정 홍섬도 사직을 청함으로써 분란은 표면적으로 가라앉았다.¹⁹⁾ 구신계의 구심점인 이준경의 적극적인 동조를 받지 못한 데서 보듯이 김개·홍담의 신진사류 축출 움직임은 구신계 전체의 결집된 의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기가 舊臣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출신기반과 정치성향이 다양하여 중종대 이래 함께 벼슬해 왔다는 것 이외는 공통된 요소가 없어 정치세력으로서의 결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히는 이 문제에 구신계 전체가 동일한 보조와 움직임을 취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그 파장이 길지 않고 바로 수습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그리 작은 것은 아니었다. 《宣祖修正實錄》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구신과 신진사류를 각기 가리키는 老黨·少黨이라는 봉당 명목이 생겨났다고 기록하였다.²⁰⁾ 구신들의 정치적 결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노당이라 불리워졌다고 해서 그것을 곧 하나의 정치세력화한 봉당으로 볼 수는 없다. 아마도 ‘老黨’이란 명칭은, 그 동안 구신들과 대립해오던 일단의 신진사류를 마치 중종때의 조광조 등 연소사류에 비슷한 존재로 간주하여 少己卯라고 부르면서 위협시하고 연소배로 몰아 낮춰보려는 데서 생겨난 少黨이란 명목에 대비시켜 당시 사람들이 부른 데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문제는 사류로 구성되었다는 소당이다. 그들은 구신과의 대립을 거치면서

18) 《論思錄》下, 선조 2년 6월.

19) 《宣祖實錄》권 3, 선조 2년 6월 신사.

《宣祖修正實錄》권 3, 선조 2년 6월.

20) 《宣祖修正實錄》권 3, 선조 2년 6월.

개혁을 지향하는 비슷한 정치적 입장을 취했으며,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서로 통할 수 있는 정치이념과 이론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그들간에는, 기묘사류의 결속력과 일체감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동류의식과 같은 연대감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존재와 움직임이 구신들이나 제 3자에게는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비쳤을 것이다. 소당이란 명목은 그래서 나왔을 것이며, 2~3년 후 영의정 이준경이 죽음에 임하여 올린 遺劄에서 조정에 붕당의 조짐이 있다고 하였던 것도 바로 이들을 지목했던 것이고, 또 그러기에 이들은 이준경이 자신들을 붕당으로 몰아 일망타진하려하는 小人이라고 배척해마지 않았던 것이다.²¹⁾ 후일 동인·서인의 分黨시기에 선조 이후 진출한 사류로부터 前輩내지 先輩로 불리워지며 沈義謙黨 내지 서인에 속하였던 인물들은, 예외가 적지 않게 찾아지기는 하지만, 상당수가 이들 소당에서 나왔다. 그런 면에서 이 시기의 소당이란 명목의 출현은 후일의 동·서분당의 선구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낭천권의 확보와 문소전 논의를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浮上하게 된 신진사류는 이제 舊臣에 당당히 맞설 정도의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을사사화 피해자의 伸冤과 사화를 일으켜 공신에 책봉된 자에 대한 削勳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였다. 그런데 이 신원과 삭훈의 문제, 그 중에서도 삭훈 주장은 을사사화 자체를 무효화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거기서부터 비롯된 권신체제하에서 벼슬한 구신들의 처지나 명분이 무너짐은 말할 것도 없고, 사화를 逆獄으로 인정하고 공신 칭호를 내려준 명종의 처분을 부정함으로써, 명종의 후계자였던 선조의 명분까지 난처함에 빠뜨릴 것이었다. 그러므로 乙巳伸冤과 삭훈문제에 관한 한 사류들

21) 이준경은 遺劄의 第 4條 破朋黨之私에서 당시에 행실이나 학문을 닦지 않고 高談大言이나 일삼는 무리들이 朋黨을 결성, 스스로를 높은 척하며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여 용납하지 않는 虛僞의 풍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것은 이준경 나름으로는 혁신을 추구하던 일부 사류의 정치행동을 경계망동으로 보아 우려를 표명한 것이겠지만, 이를 붕당으로 지목한 것이 문제였다. 이때만 해도 조정의 붕당인식은 政亂國亡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朋黨 행위를 하는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정만조, 앞의 글, 104~106쪽 참조.

도 선뜻 의견을 내기는 어려웠고, 뿐 아니라 사류 내의 의견마저 한결같지 않았다. 예컨대 이이·정철·이해수 등의 권신체제가 무너진 뒤 관직에 나왔던 비교적 연소한 사류들은 사화자체를 역모사건이 아니라 윤원형·이기 등의 권신이 공을 탐해 날조한 誣獄으로 보아 완전한 신원과 삭출론을 폈으나, 신진사류의 종장이라고 할 이황이나 선배격에 해당하는 허엽은 이른바 을사원흉이라는 尹任과 桂林君 瑠는 신원되기 어렵고, 따라서 삭훈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며, 신진사류의 의론을 선도하던 기대승도 삭훈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와 같은 이견이 있고 또 난관과 반대론이 예상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류로 보아서 을사사화의 신원과 삭훈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였다. 그것은 비단 사람적 명분을 바로 잡는 일일뿐 아니라, 신진사류 자신의 정치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현실적인 면에서도 필요하였다. 이에 선조 3년(1570) 4월 백인걸의 신원상소를 효시로 하여 삼사의 상소가 뒤따랐고 이이가 홍문관 교리가 된 5월 이후 삭훈 논의가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피화인은 신원되었으나 柳灌·柳仁淑 및 윤임과 계림군 류의 복관, 그리고 삭훈문제는 끝내 성취하지 못했다.²²⁾

을사 삭훈 논의를 거치면서 권신체제와 연결되었던 구신계의 정치적 입장은 약화되었다. 그 결과 선조 4년 무렵부터 구신계의 정계로부터의 퇴조가 현저해지고, 따라서 정국의 주도권은 점차 사류의 수중으로 넘어오게 된다.

우선 선조 3년말부터 계속 사직소를 올리던 이준경이 4년 5월 영의정에서 물러났다. 우의정과 우찬성이 되었던 吳謙과 朴忠元 역시 삼사의 탄핵으로 곧 면직되고 그 대신 구신계와 동년배이면서도 신진사류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던 李鐸이 우의정에 올랐다.

거기에다 이준경이 선조 5년 7월에 죽었다. 죽음에 임해 올랐던 破朋黨의 遺箚가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어찌하였던 구신계로서는 큰 타격을 받은 셈이다. 뒤이어 우의정에 올랐던 鄭大年도 언관의 논박으로 체직되어 향리로 돌아가고 형조판서 元混, 예조판서 朴永俊,

22) 이것은 후일 선조 10년 인종비 仁聖王后가 위독할 때 大妃의 至願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선조의 결단으로 비로소 실현된다.

형조판서 박충원, 이조판서 金貴榮·姜士尙 등도 탄핵을 받거나 혹은 스스로 파직하였다. 이와 달리 박순·노수신 등 사림계 인사가 차례로 대신이 되면서 마침내 선조 6년(1573) 9월 영의정에 이탁, 좌의정 박순, 우의정 노수신으로 된 의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지금까지 청요직에 머물던 사류로서는 자기 계열의 인물들로 대신의 자리를 채우게 됨으로써 비로소 국정을 전담할 수 있게 되었다. 바야흐로 사림의 정치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류들은 우선 그때까지의 정치적 경험으로 보아 사림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임금인 선조의 마음을 돌려 사림적 정치관에 동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경연을 통해 이른바 군주의 회천을 위해서 이이·김우옹·유성룡 등 당대 일류의 학자가 정성을 다하고, 미출신자의 입대제도 마련하여 성혼·정인홍 등 산림학자를 사헌부의 지평·장령에 임명케 하며 나아가 그들을 경연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미출신자의 경연직 접대까지 요청하였다.

그런 한편으로는 숙폐의 제거를 위한 혁신도 추진하였다. 교화보다 양민이 시급하다고 하여 향약을 일시 중지시키는 한편 각사의 공판을 혁파하는 가공제를 실시, 방납의 폐를 줄이고 새로운 군적을 반포하여 피역자를 색출함으로써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류의 이러한 노력들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고 또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도 없었다. 그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다. 우선 그렇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君心の 回天은 쉽지 않았다. 道學에 기초한 君子的 기준에서 고도의 도덕적 자기 수양과 욕망의 억제를 요구하는 사림의 고답적 왕도정치론은 흔히 군주의 자의적 언동과 충돌을 일으키게 마련이었다. 治世를 이루겠다는 의욕을 가졌던 선조의 경우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류에게 정치를 맡긴지 몇 달도 되지 않아 黃蠟을 대궐로 들이라는 內帑에 연관들이 佛事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자, 크게 노하여 연관들을 질책한 뒤부터 사류를 멀리하기 시작해 박순·이이·이탁 등을 물러나게 하고 다시 구신을 등용해 사류를 실망시켰던 것이다.

다음으로 비록 퇴조하였다고는 하나 구신계가 여전히 사류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것은 선조 8년 명종비 仁順王后의 卒哭후 服制를, 五禮儀에 규정

된 바를 수정하여 古禮에 맞도록 흰색으로 바꾸자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舊臣系가 祖宗의 옛 제도를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반대한 데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²³⁾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처지에서 그들은 사류의 주장에 의구심을 갖고 개혁에 소극적인 국왕에 의지하여 수구적 자세를 고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 시기에 이르러 사류사이에 개혁의 방법이나 정국운영의 방향을 놓고 의견차이가 심화된 데 있었다. 바로 사류의 분열로 인한 동인·서인 봉당의 출현인 것이다.

2) 사류의 분열과 봉당의 출현

구신계가 퇴조하고 사림계가 三司의 언론권은 물론, 의정부의 대신직을 차지함으로써 사림에 의한 정국 주도가 가능해진 시점에 이르러 이제 사림계 자체 내부의 분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정계에 포진한 사류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중 첫째 부류는 앞서 선조초의 구성에서 제시한 바 있는 명종 연간에 정계로 진출했던 존재들이다. 즉 명종 전반기에 벼슬에 나왔던 朴淳·許曄·金繼輝·具鳳齡·洪聖民·辛應時·尹斗壽·尹根壽·沈義謙 등(이들은 선조초에는 선배격이었다)과, 후반기에 등장한 鄭澈·李山海·李珥·柳成龍·金孝元·李海壽 등(당시는 후배사류로 불림)이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들은 명종말 선조초에는 선후배 사류로 구분되었으나 선조 이후 벼슬해 오는 과정에서 관직상의 상하 차이가 거의 없어져서 선조 8년경에는 같은 당상관으로서 三司의 장관직이나 승정원의 승지, 6조의 참의, 참판직에 함께 벼슬하였다.²⁴⁾ 따라서 이들은 선조 이후 진출하는 사류에 대해서는 선배적인 위치에 있었다.

한편 두 번째 부류는 선조 이후 관계로 나온 사류들이었다. 당연한 일이

23) 김항수, 앞의 글, 121~124쪽.

24) 예컨대 선조 7년경의 승정원 구성을 보면 도승지 許曄, 좌승지 朴好元, 우승지 李山海, 좌부승지 安自裕, 우부승지 李珥, 동부승지 權德興이며 사간원 대사간을 李後白·李珥·洪天民·李山海가 돌아가며 담당하고 있다.

지만 선조 이후에도 과거는 계속 설행되고 다수의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文科榜目》에 의해 선조 8년(1575)까지만 찾아본다 하더라도 모두 11회 설행에 급제자 수는 229명에 이른다.²⁵⁾ 물론 이들이 모두 관직을 받았거나 중앙정계에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다. 庚午(선조 3년) 式年榜의 장원급제자인 金大鳴은 평생의 관직이 고작 군수에 그쳤으며 심지어 甲戌(선조 7년) 別試榜의 鄭詳은 장원급제를 하고서도 일생 관직을 갖지 못할 정도였다.²⁶⁾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벼슬을 받아 중앙정계에서 활동하고 후일 名士가 되어 達官하는 인물도 또한 적지 않았다. 尹睨·金宇顥·趙憲·金應南·禹性傳·李山甫·金誠一·李元翼·洪進·李誠中·李敬中·沈忠謙·許筭·趙瑗·柳永慶·沈喜壽·洪迪·尹承勳·李潑·金晬·李景嶮 등이 그들이다.²⁷⁾

동·서분당때 각기 전위세력으로 크게 활동했고 후일 대신급에까지 오르기도 하였던 이들은 선조 8년경의 시점에서는 앞서 말한 명종 연간 진출한 사류와 구분되어 후배사류라 불리웠다. 이들에게서 퇴계나 남명계열의 학통적 요소를 다수 찾을 수 있는 외에 별다른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관직에 처음 나온 新進氣銳한 존재였음으로써 사류의 이상인 사림정치의 실

25) 선조 즉위년의 식년시 33명, 원년의 증광시 33명, 2년의 알성시 7명·별시 16명, 3년의 식년시 34명, 5년의 춘당대시 15명·별시 16명·별시 19명, 6년의 식년시 34명·알성시 7명, 7년의 별시 15명 등 총 11회 229명.

26) 《文科榜目》 선조 甲戌 別試榜 甲科一人 鄭詳의 항목에 벼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27) 이들의 生卒年度와 문과급제연도는 다음과 같다.

이 름	生卒年度	문과급제연도	이 름	生卒年度	문과급제연도
尹 睨	1536~1598	1567	金宇顥	1540~1603	1567
趙 憲	1544~1592	1567	金應南	1546~1598	1568
禹性傳	1542~1593	1569	李山甫	1539~1594	1568
金誠一	1538~1593	1568	李元翼	1547~1634	1569
洪 進	1541~1616	1670	李誠中	1539~1593	1570
李敬中	1543~1585	1570	沈忠謙	1545~1594	1572
許 筭	1551~1588	1572	趙 瑗	1544~1595	1572
柳永慶	1550~1608	1572	沈喜壽	1548~1622	1572
洪 迪	1549~1593	1572	尹承勳	1549~1611	1573
李 潑	1544~1589	1573	金 晬	1547~1615	1573
李景嶮	1537~ ?	1573			

현에 기대가 컸을 것이고 그런 만큼 지지부진하기 만한 정치현실을 비판하면서, 이미 기성 관료화해버린 선배사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키우고 있었을 것이다.

사류 내부의 분열은 먼저 선배사류내에서 외척인 심의겸의 정치관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데서 발단하였다. 명종비 심씨의 동생으로서 비교적 이른 시기인 명종 16년(1561) 문과에 급제해 벼슬길에 들어선 심의겸은 평소 사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특히 명종 18년 당시의 權臣이던 李櫟이 자기를 배척하는 사류를 제거하고자 또 한 차례의 사화를 획책할 때, 누이를 통해 명종을 움직여 이량을 귀양보냄으로써 사류를 위기에서 구하는 공을 세웠다. 뿐 아니라 그는 이후에도 척신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사류를 보호하고 그들의 정치적 성장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이런 까닭으로 선배사류는 대개 심의겸을 비록 출신이 척신이기는 하나 사림의 동조자로 받아들이고 그 정치적 활동을 용인하였으며, 乙巳削勳 문제와 같은 정치적 난제의 해결에 그의 힘을 빌리려고까지 한 적도 있었다.²⁸⁾

그러나 선배사류가 모두 심의겸의 인품이나 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를 긍정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명종 21년 윤 10월 그가 우부승지에 임명되었을 때의 史評에서 사류를 보호한 그의 공은 인정하면서도 “벼슬한지 5년만에 당상에 뛰어 오르되 이를 혐의롭게 여기지 않고 賓客을 널리 끌어들여 門庭이 마치 저자거리 같으므로(廣延賓客 門庭如市) 識者가 이를 근심했다”²⁹⁾고 한 데서 이미 명종 말년부터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 아니라 선조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의 높은 정치적 비중이, 선조의 大統계승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이제는 大妃로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명종비 심씨와 형제관계였다는 데 토대하고 있었음으로써, 선조 이후 그의 척신적 입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미 선조 원년 당시 사류의 원로였던 白仁傑이 “심의겸은 외척이면서 어찌 정치에 관여하는가, 오늘날의 사류는 거의 의겸의 門客일 뿐이니 외척의 권력을 너무 성하게 해서

28) 《經筵日記》 선조 3년 10월.

29) 《明宗實錄》 권 33, 명종 21년 윤10월 을미 및 권 34, 명종 22년 정월 신묘에 심의겸이 이조참의에 임명된 데 대한 史評에도 비슷한 견해가 피력되고 있다

는 안된다”³⁰⁾고 하여 외척으로서 심의겸의 정치관여를 비난한 바 있으며, 후일 동인·서인 分朋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말해지는 심의겸·김효원 사이의 불화를 가져 온 직접적 요인도 김효원에 의한 심의겸의 외척적 존재의 배척에 있었다. 뒤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선배사류 중에 박순과 더불어 명망이 있던 허엽 역시 외척으로서의 심의겸을 눈치하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을 외척문객으로 매도하였다.

선배사류내에서는 비록 소수였기는 하지만 김효원과 허엽의, 심의겸과 그를 용납하는 분위기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설사 그것이 《經筵日記》의 기술대로 사실에 어긋나는 謬見이었다고 하더라도 사림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제의 잔재인 척신적 요소의 척결이 앞으로 불가피한 과제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동안의 정국운영을 통해 확실하게 임금의 지지를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구체제의 혁신에 한계를 보이는 선배사류에 불만을 쌓아가던 후배사류들은 쉽사리 그들의 견해를 수용할 수 있었다.

선조 8년(1575) 이조정랑으로 있던 김효원이 그 후임자로서 심의겸의 동생 沈忠謙이 물망에 오르자 이조의 벼슬이 외척 집안의 물건이 아니라 하여 이를 저지함으로부터 본격화되었다는 沈·金の 是非가, 그들을 각기 지지하는 선배와 후배사류의 분열로 확대되고, 선배사류 중에서도 연배가 가장 높은 축이던 허엽이 도리어 후배사류의 영수가 되어 그 여론을 주도하였던 저간의 사정은 이런 배경 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선·후배간의 불화가 정치적으로 처음 표면화되어 끝내 동인·서인의 붕당 명목의 성립(乙亥黨論)으로까지 나가게 된 계기는 선조 8년의 載寧지방 殺主奴에 대한 獄事의 처리문제에서였다.³¹⁾ 먼저 허엽과 김효원이 대사간·사간으로 있던 사간원에서 옥사의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옥사를 담당했던 영의정 박순을 논핵하자, 정철·신응시·김계휘 및 윤두수·윤근수 등이 중심이 된 선배들은 이를 박순을 공격해 물러나게 함으로써 심의겸의 세력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하여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였다. 그 결과 허엽·김효원과 이경중·허봉 및 연관직에 있던 다수의 후배사류가 벼슬에서 물러났

30) 《經筵日記》 선조 원년 秋.

31) 《宣祖修正實錄》 권 9, 선조 8년 7월.

으며, 선배들의 이런 처사에 대한 사림의 여론이 악화되었다.

이에 사류 간의 내분을 근심하고 특히 후배사류의 과격성을 우려하던 부제학 李珪가 좌의정 노수신을 움직여 조정분란의 책임소재로 심의겸·김효원을 지목, 임금의 명으로 두 사람을 지방관으로 내보내게 함으로써(外補論) 분쟁을 진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심의겸은 개성유수, 김효원은 慶興府使가 되어 조정을 떠났다. 하지만 조정의 분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후배사류는 김효원의 임지가 변방이라 하여 불평하였고, 이번의 인사조치를 통해 과격성을 지닌 연소사류의 淸論을 싫어하여 이를 억제하려 하는 왕의 의도를 간과한 선배사류는 이 기회에 후배사류의 핵심인물을 조정에서 몰아내어 그 기세를 꺾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³²⁾

이때의 정세는 임금의 지지를 받은 선배측에 유리하였다. 그 동안 후배사류의 淸要職 진출과 언론권 장악의 보루이던 吏曹銓郎의 자리가 선배사류의 수중으로 넘어온 것이다. 허봉·이경중이 물러난 자리는 윤두수의 조카인 尹暉이 차지하였고 그에 의해 趙瑗·李純仁·李山甫 등 선조 이후에 진출한 후배이면서도 선배의 편에 섰던 인물들이 차례로 이조전랑이 되어³³⁾ 후배사류의 언론을 억제하면서 한편으로 벼슬에 처음 나온 新進을 그들 쪽으로 끌어갔다. 뿐만 아니라 李後白이 이조판서가 됨으로써 일반관료의 인사권까지 좌우하게 되었다. 그간 외척 심의겸과의 관련 때문에 수세적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로서는 심의겸이 외직으로 나가 그 부담을 덜게 되자 인사권·언론권을 배경으로, 몇 명의 선배사류에 불과하였다는 약세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형세를 만회할 수 있게 되었다.³⁴⁾ 여기에 이르러 지금까지 그저 선·후배간의 불화와 대립이라거나 沈邊·金黨 또는 外戚·少年之黨으로 불리던 사림의 분열 양상은 마침내 동인·서인이란 명목을 갖게 된다.³⁵⁾ 봉당

32) 《宣祖修正實錄》권 9, 선조 8년 9월.

33) 《經筵日記》선조 9년 2월.

34) 《宣祖修正實錄》권 10, 순조 9년 2월.

35) 이때 東人·西人에 속한다고 알려진 인물들은 대개 다음과 같다.

東人：許晔(대사간), 禹性傳(正言), 李敬中(이조좌랑), 李誠中(수찬), 李潑(이조전랑), 洪進(교리), 洪迪(응교), 洪渾(대사간), 金誠一(수찬), 許箕(이조좌랑), 鄭熙績(지평), 尹承勳(정언), 宋應洞(정언), 金孝元(삼척부사), 李拭(대사헌), 朴大立(형조판서), 朴謹元(이조참의), 柳璵(예조판서).

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동인·서인이 사림정치에서 말해지는 성리학적 公黨으로서의 붕당에까지 나간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의 붕당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하나는 어느 시기이고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개인적 차원의 갈등과 상호 배척에 그 친척이나 친구가 각기 편을 들어 무리를 이루어 대립하는 형태이다. 《大明律》의 奸黨條에 본인은 목을 베며 처자식은 중을 삼고 재산은 몰수한다는 죄목으로 규정된 조정 관리의 붕당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선조초李文馨과 洪仁慶의 불화에 友人들이 편을 들어 붕당의 조짐을 보였다는 것은 이런 형태의 한 예라고 할 것이다.³⁶⁾

다른 하나는 歐陽修가 개념화하고 朱熹에 의해 성리학적 정치이론으로 확립을 보게 된 君子와 小人 집단으로서의 붕당이다. 소인의 붕당은 私利를 도모하기 때문에 利가 갈라지면 깨어지게 마련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붕당은 군자에게만 있으며, 따라서 이런 붕당은 至治의 실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정치형태이고 君主까지도 여기에 들게 해야 한다(引君爲黨)는 것이다. 일종의 긍정적 정치기능을 가진 公黨이라 할 것이다. 이 시기의 사류들은 종종 때의 조광조 일파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았으며, 앞서 말한 선조 2(1569)·3년경의 舊臣 중심의 老黨에 대한 그들 위주의 少黨도, 그들만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군자의 당으로 간주하였다.

사림정치의 구현을 위한 구체제의 혁신과정에서 외척으로서의 심의겸의 정치적 존재를 허용하느냐 또는 부정하느냐는 견해차이에서 비롯된 선·후 배간의 갈등과 대립은, 비록 심의겸·김효원을 각기 지지하고 상호 배척하는

西人：朴淳(영의정), 金繼輝(대사헌), 尹斗壽(대사헌), 尹根壽(부사), 鄭澈(직제학), 李海壽(대사간), 具鳳齡(대사간), 李後白(이조판서), 辛應時(예조참의), 尹晁(이조정랑), 趙瑗(이조좌랑), 李山甫(이조정랑), 沈義謙(개성유수), 洪聖民(부제학).

이때는 東人·西人에 직접 속하지는 않으면서 李珥를 따라 兩者의 대립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하는 일종의 調劑세력이 있었다. 즉 李珥(부제학), 盧守愼(좌의정), 柳成龍(헌납), 金宇顥(교리), 李山海(우승지), 成渾(집의), 鄭仁弘(《經筵日記》, 선조 14년 4월) 등이 그들이다. 이 중에서 이이와 성혼은 서인쪽에 가까웠고, 유성룡·김우옹·이산해·노수신은 동인쪽으로 기울고 있었으며, 정인홍은 처음 이이와 가까웠던 것으로 말해진다(《經筵日記》, 선조 14년 4월).

36) 《經筵日記》 선조 원년 5월.

단계를 지나 동인·서인의 명목을 갖는 데까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느 당을 眞朋으로 보고 僞朋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나 王의 단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뚜렷한 정치이념이나 학파적 색채를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성리학적 公黨으로서의 봉당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선조 16년 李珣가 서인으로 自定하여 동서인간에 학파적 성격과 정국운영의 방안에서 독자성이 확보되고 거기에 따라 기존의 봉당과는 다른 제 3의 봉당형태가 개념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심의겸과 김효원의 外補에서 비롯된 서인의 우세는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선조 11년 경연에 입시하였던 동인 金誠一에 의해 서인의 중진인 尹斗壽·尹根壽·尹暉이 지방관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사실이 거론되면서³⁷⁾ 서인의 정치적 입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척신정치하에서 자행되었음직한 수뢰사건에 서인계 인물이 관련된 혐의가 주어진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서인계의 정치적 위상을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심의겸을 용납하는 선배세력을 외척당으로 몰아 붙이면서 구체제의 잔재 청산에 미온적이라고 공격하던 후배 내지 동인사류의 주장을 합리화해 주었다. 여기서 동인은 자기파내의 언관들을 동원해 三尹을 탄핵함은 물론 三尹이 속한 서인의 대표인 심의겸을 소인으로, 그 주론자인 정철·김계휘를 私黨으로 몰면서, 나아가 이를 통해 동인이 바르고 서인이 사당이라는 東正西邪論을 제창, 이를 國是로 인정받고자 하였다.³⁸⁾ 동인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자성리학이 갖는 군자소인변 위주의 봉당론에 의거하여 동인을 군자당 서인을 소인당으로 공인 받아서 進君子·退小人의 원칙에 따라 서인의 정계 재진출의 길을 막고 정치현장에서 일소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이러한 동인의 공세에 맞서 서인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어 논리를

37) 이를 보통 三尹事 또는 李銖의 獄이라 부르며 三尹은 바로 파직된다.

《宣祖修正實錄》권 12, 선조 11년 10월.

《經筵日記》선조 11년 9월.

38) 《宣祖修正實錄》권 13, 선조 12년 2월.

렸으나 한번 명분논쟁에서 밀린 형세를 만회하기는 역부족이었다. 東正西邪論이 한창이던 선조 12(1579)~13년의 기간에 서인의 대표적 인물이던 심의겸·김계휘·정철이 각기 함경·전라·강원도의 관찰사, 윤두수·윤근수 형제가 연안부사·개성유수로 외직에 나가 있었던 사실은 당시 서인측이 처한 곤경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서인측의 위기는 이이의 중재 노력에 의해 일단 넘길 수 있었다. 처음 심의겸·김효원의 外補論을 편 이후 그 동안 동인·서인 내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던 李潑과 鄭澈 사이의 화해를 주선하는 등 개인 사이의 갈등 등 해소에 힘써 오던 율곡은 이때 와서 “동인·서인의 명목을 깨뜨려 분열 이전과 같은 하나의 사류로 재결속하는 것(打破東西 保合土類)”을 목표로 하는 調劑說³⁹⁾을 표방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兩是兩非와 辨別淑慝을 주장, 서인에 대한 동인의 공세를 흐리게 하거나 둔화시켰다.

양시양비란 동인·서인 양측에 모두 시와 비가 함께 있다는 뜻이다. 즉 심의겸은 외척이면서도 앞서 명종때 사류를 보호한 공이 있고, 김효원은 명류를 끌어와 조정을 깨끗하고 맑게 한 공이 있어 양쪽 다 옳다(兩是)는 것이며, 그러나 심의겸은 외척으로서의 행동을 조심하지 못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김효원은 유생의 몸으로서 비록 친구의 처가이기는 하나 權奸의 집에 출입하였던 허물이 있으므로 두 사람 모두에 잘못이 있다(兩非)는 것이다. 따라서 동인이 옳고 서인이 그르다(東是西非)는 주장은 동인측의 일방적 견해에 불과할 뿐 공론이 아니며 공변된 입장에서 말한다면 양시양비일 뿐이라고 하였다. 물론 이 양시양비론이 동인·서인 분쟁의 근본적인 해소책이 되리라고는 율곡 자신도 생각지는 않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시비분쟁 자체가 현안의 민생문제와 직접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국정의 수행에도 그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시비를 애써 가리려는 것이 분쟁만 격화시킬 뿐이니 만큼 그저 양시양비의 선에서 그만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란 뜻이 강하게 담겨져 있었다.⁴⁰⁾ 이를테면 이 양시양비는 율곡의

39) 《宣祖修正實錄》 권 13, 선조 12년 5월.

《栗谷全書》 권 7, 疏筭 5,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40) 이이는 사림이 우세해진 당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훈척정치 아래에서

입장에서 볼 때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한 東是西非論에 대항하는 의미를 지녔으며 또 그 주장을 희석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한편 동인·서인 모두에 사류로서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나 심지어는 간사한 자들까지 섞여 있어 사류 재결속을 위한 조제책의 시행에는 반드시 이들을 먼저 구별해 내어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辨別淑慝(때로는 濁流를 치고 淸波를 일으키게 한다는 즉 악을 정벌하고 선을 드러내게 한다는 뜻의 激濁揚淸이라고도 씀)이었다. 율곡은 서인 안에 심의겸이나 三尹과 같은 열등하거나 흠 있는 인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인 속에도 앞서 老黨에 속하였던 流俗의 무리가 뒤늦게 가담하였기에 동인 역시 사류의 순수성을 잃고 淸濁과 善惡이 뒤섞여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자소인론까지 거론하며 三尹事를 들어 東正西邪를 국시로까지 삼으려는 동인의 주장은 그만큼 설득력이 없다는 것으로 동인의 공세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율곡의 이러한 양시양비와 변별숙특론은 동서서비와 나아가 동정서사론까지 내세우는 동인 주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동인은 율곡이 “서인을 부추기고 동인은 억제하려 한다(扶西抑東)”고 까지 의심하면서 그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게 된다. 정언 宋應洞과 집의 許晉·洪渾 등이 白仁傑 상소의 破朋黨 부분을 이이가 代述한 일로써 탄핵하고 나와 한동안 조정이 시끄러웠던 사건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⁴¹⁾

그러나 율곡의 조제보합론은 박순·노수신 등 대신과 그 당시에 명사로서

과생된 많은 사회적 모순과 병폐를 개혁하여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그러므로 〈東湖問答〉이나 〈萬言封事〉 등에서 폐정개혁을 위한 경장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의 실현은 용이하지 않았다. 임금의 적극적인 지지도 필요하였거니와 정치를 담당할 사류의 힘과 재주를 함께 모을 필요도 절실하였다. 하지만 당시와 같이 사람이 분열되어 동·서인이 부질없는 시비는 쟁에 매달려있는 상황에서 그것의 실현은 바랄 수 없었다. 그가 三尹事를 계기로 한 동인의 심의겸과 서인공격에 대해, 그것이 국가의 治亂이나 민생대책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리도 심한가 반문하고, 설사 동인이 군자의 이름을 얻고 서인이 소인으로 낙인찍힌다하여 그것이 피폐한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비난한 것은(《栗谷全書》 권 7, 疏筭 5,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바로 이와 같이 민생문제를 최우선의 해결과제로 보는 그의 시국관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서인의 갈등에 대해 동서명목을 깨뜨려 사림의 결속을 목표로 하는 그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국관의 소산이기도 하였다.

41) 《宣祖修正實錄》 권 13, 선조 12년 7월.

이름이 높던 김우옹·유성룡·이발·성혼·정인홍 등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김우옹·이발·유성룡 등 동인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가 동인내 浮薄者의 과격한 주장을 억제하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율곡을 옹호한 것은, 그가 추진하는 동인·서인의 타협에 의한 정국 안정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⁴²⁾ 그리하여 비록 열세의 상태에서나마 서인도 三尹事로 인한 곤경에서 벗어나 정치세력으로서의 일정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율곡 역시 이러한 정국 안정을 바탕으로 貢法의 개정, 군적의 개편, 지방 군현의 합병, 監司久任論 등 경장론을 펴면서 현실에서의 적용에 주력할 수 있었다.⁴³⁾

동인세력의 압도적 우세하에 이이의 조정 노력에 의해 서인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던 정국은, 선조 16년(1583)에 들어와 이이가 동인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게 되면서 큰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이의 西人自定과 그 지지세력 및 문인들의 참여로 서인이 외척당의 혐의에서 벗어나 政派로서의 존재를 확립하게 되어 비로소 朋黨政治라는 하나의 정치형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이가 공격대상이 된 것은 앞서 밝힌 대로 양시양비와 변별속특론이 扶西抑東하는 기반적 논리라고 동인으로부터 의심 받아왔던 데 기인하지만, 그 직접적인 계기는 선조 15년 그가 이조판서로 발탁되었을 때 이를 사양하면서 올린 상소⁴⁴⁾의 내용 중에, 이조전랑의 淸選權 행사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 데 있었다. 본래 이조판서의 자리는 國政과 世道を 自任하는 인물이 임명되어 인사권을 쥐고서 한때의 맑은 논의(淸論, 곧 輿論)를 주재하게 마련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중요한 言官의 선발권(館閣淸選)을 이조전랑에게 한가지로 맡겨 버리고, 판서는 그저 보잘 것 없는 말단 관리를 선발하는 권한만 행사하게 되었으므로 본말이 전도되어 기강이 서지 않는다고 한 것이 그 요지였다. 자신이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의도가 전랑이 행사하는 언관의 선발권을 판서에게로 넘겨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판서로 하여금 명실상

42) 예컨대 白仁傑疏의 代述事로 정언 宋應洞이 李珥를 탄핵했을 때 교리 金宇顥이 “宋應洞必是小人也 欲乘此機會 陷害君子也 當劾遞”라 하여 구원한 것을 들 수 있다(《經筵日記》 선조 12년 7월).

43) 《栗谷全書》 권 7, 疏筭, 陳時弊疏(壬午).

44) 《栗谷全書》 권 8, 啓議, 辭吏曹判書 三啓(壬午).

부한 인사권 장악은 물론, 그에 토대한 여론 주재권까지 갖게 한다는 데 있음은 명백하였다. 다른 사류들과 마찬가지로 그 스스로도 낭천권의 확보를 통한 낭관권의 강화에 힘써오던 이이가, 이때 와서 거꾸로 낭관권 자체를 문제삼으며 모든 권한을 판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주장을 펼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의 입장에서 볼 때 민생문제의 해소나 국난의 타개와는 하등 관계없이, 그저 상대당을 배척하기에 급급해 인신공격이나 일삼는 일부 동인들의 무분별한 언론행위에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 이이 역시 집요하게 東正西邪를 고집하는 동인 언관들을 怪激을 일삼는 浮薄之徒로 몰아 붙이면서, 이들의 발호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유성룡·이발·김우웅 같은 동인계 名士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제 그로서는 폐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사류의 힘을 결집시키는 保合士類의 방법으로서, 이때까지 취해오던 동인사류와의 연결을 통한 조제방식을 그대로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책을 모색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를테면 이조전랑의 淸選權행사에 대한 율곡의 문제 제기는 이런 여러 가지 배경 위에서 나오게 된 일종의 여론 탐색용 시도였던 셈이다.

예상대로 동인이 주도하던 조정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그들은 전랑이 갖던 청선권의 판서에의 귀속 주장을, 이이가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고자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배척해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그의 경장론까지도 일을 꾸미기 좋아하는 자의 國家典禮를 훼손하는 무모한 계획으로 비판하였다.⁴⁵⁾ 여기에는 유성룡·이발·김우웅 같은 그 동안 그를 지원해 오던 동인계 명사들까지 가담하였다. 결국 이이는 이조판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지만 이제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게된 兩者の 불신이 깊어지는 속에 정국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선조 16년의 이이에 대한 동인의 공격은 마침 여진의 추장인 尼蕩介의 침입을 받아 병조판서로서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몇 가지 실수가 문

45) 《宣祖修正實錄》권 16, 선조 15년 정월.

제되면서였다. 몇 가지 실수란 戰場으로 보낼 말을 확보하기 위해 射手에게 말을 바치면 출정을 면제해 주기로 하고, 미처 임금의 재가를 받기 전에 이를 시행하였고, 또 임금의 부름을 받고 대궐로 들어가던 중 현기증으로 內兵曹에 누웠다가 그대로 나온 일을 말한다.⁴⁶⁾ 이에 持平 李景暉를 위시한 대사헌 李瑩·집의 洪汝諄·대사간 宋應漑·헌납 柳永慶·부제학 權德輿·전한 許筠·洪進·洪迪 등 동인으로 구성된 三司가 들고 일어나, 임금의 허락이 내리기 전에 시행한 것은 권력을 오로지 하며 함부로 휘두른(專擅權柄) 죄요, 부르는데도 병을 핑계하고 오지 않은 것은 교만하며 임금을 가볍게 보는(驕窻慢君) 죄라고 하며, 심지어는 誤國小人으로까지 몰아 심히 공격하였다.⁴⁷⁾ 실상 위에 열거한 한두 가지 실수를 專擅慢君의 죄목으로까지 몰아가는 데에는 동인 내에서도 異論이 없지 않았다. 대사성으로 있던 김우옹이, 이이가 뜻은 크지만 재주가 성글고 포용력이 적기 때문에 사류의 공격을 받게 되었음을 말하면서도, 그를 공격한 삼사에 대해 뜯소문을 만들어 일을 꾸미기 좋아하는 무리라고 단정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⁴⁸⁾ 그러나 동인 내에서 이런 자세를 가진 인사는 거의 없었다. 선조 15년(1582)의 전랑 淸選權 문제로 소원해 지기는 했으나, 평소 동인·서인의 조제보합론에 뜻을 같이해 동인의 과격한 언론을 制抑해 오던 유성룡·이발 등이 이이에 대한 탄핵이 나오기 직전, 중실이던 慶安令 瑤에 의해 동인의 괴수라고 지목, 비난받음으로써 이들이 避嫌하여 조정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이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영의정 박순을 위시한 서인계 관료들과 성혼 등 사림의 衆望을 받던 인물들의 변호 및 정철이 배후에서 지휘했다고 말해지기는 하지만 성균생원 柳拱辰 등 462인의 이이 지지 상소를 위시한, 전라도·황해도 유생들의 상소가 답지하였다.⁴⁹⁾

무엇보다도 이이에게 힘이 된 것은 동인의 일방적인 독주에 견제의 필요

46) 이에 대해서는 이이가 死去한 뒤 그 門人 李貴가 亡師를 변호하기 위해 올렸던 상소에 자세하다(《宣祖修正實錄》 권 21, 선조 20년 3월, 成均進士趙光玕李貴等疏).

47) 《宣祖修正實錄》 권 17, 선조 16년 6월, 兩司의 啓 및 대사간 宋應漑 辭職啓.

48) 《宣祖修正實錄》 권 17, 선조 16년 6월, 대사성 金宇顥 上疏.

49) 이하의 서술은 《宣祖修正實錄》 권 17, 선조 16년 6월 이후 12월까지의 기록에 의거했다.

성을 느낀 임금의 비호 및 동인계 삼사 인물에 대한 탄압이었다. 임금은 다시 이이를 이조판서에 임명하여 두터운 신임을 나타내는 한편, 三司의 이이를 향한 근거 없는 공격이 이조전랑이 浮薄한 무리를 끌어들여 뒤에서 조종한 때문이라고 하여, 청의가 대부분 전랑에서 나온다(淸議多出於詮郎)던가 權奸을 막는 구실을 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동인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조전랑의 薦望法(自薦權)을 혁파하였으며, 이이 공격에 앞장섰다하여 부제학 권덕여를 성주목사, 응고 홍적을 장언현감, 대사간 송응개를 장흥부사, 전한 허봉을 창원부사, 홍여순은 창평현령, 洪進을 용담현령, 金瞻을 지례현감, 김응남은 제주목사로 내몰고, 나아가 송응개·박근원·허봉을 조정을 어지럽히는 怪激 분자라 해서 귀양보내고 말았다. 그리고 정철을 예조판서, 홍성민을 부제학, 이해수를 대사간, 윤근수를 대사성, 성혼을 이조참의, 白惟威·鄭昌衍을 이조전랑으로 삼는 등 서인을 대거 등용하였다. 박순이 영의정에 있고 이이가 이조판서로 임명되었던 것까지 합하면, 이제 서인이 인사권은 물론 언론권까지 장악해 사실상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셈이다.

서인의 우세는 곧 정파로서의 확립과 연결된다. 동인들로부터 탄핵을 받고 서인이 이것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이이는 본의이던 아니던 간에 서인의 名目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스스로 원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앞서도 밝혔듯이 선조 15년경부터 그는 東人이 流俗의 참여로 사류로서의 순수성을 적지 않게 잃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공세는 사류가 갖는 淸議로서의 의미보다는 상대 세력의 억제와 축출을 통해 自黨의 권력 독점을 도모하려는 偏論的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었다. 더구나 유성룡·이발·김우옹 같은 명사가 동인 내에 있으면서도 이런 편론적 행위를 制抑하지 못하는 데 크게 실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그가 추구하는 사림정치하의 경장책 추진에 필요한 사람의 힘을 모으기 위해, 동인·서인으로 분열된 사류를 다시 하나로 재결속시키려는 조제보합의 실현은 바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그때까지 주장해 오던 자신의 조제보합론을 다시 재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사류의 재결속이 무망하다면, 차선책이기는 하나 사류 분열을 기정 사실로 인정한 위에서 동인에 맞설 수 있도록 사류의 당으로서 서인의 세력을 강화시켜 양자가 상호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사림정치를 운영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결론을 내린 듯하다. 그가 서인으로 自定한 것과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을 때 서인만 專用한다는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서인계 인물들을 정계 要路에 포진시키고, 서인계 신진인 백유함을 이조전랑으로 삼아 신진사류를 다수 끌어들이어 사류당으로서의 서인의 면모를 일신하려 한 것은 이런 면으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李珣의 서인 자정과 그 지지세력 및 문인들의 가담, 그리고 정치적 우세를 배경으로 한 신진사류의 흡수 등은 붕당으로서의 서인의 존재를 확립케 하였다. 정계 요직을 서인이 다수 점거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退溪·南冥을 앞세우는 동인에 비해 아직 학통상으로는 열세였는지 모르나 현실적인 학문 수준에서는 이이·성혼의 참여로 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으며, 이이·성혼의 학연을 따라 경기·황해·충청 및 전라도 지역의 일부에까지 확산된 서인계 사림의 분포는, 영남지역을 주축으로 타 지역이 부분적으로 참여한 동인계 세력에 逼近할 정도였다. 前日의 심의점을 중심으로 한 선배사류 數三人에 불과하다고 말해지던 때의 서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세력 신장이었다. 이제 조정에는 참여인원이나 정치세력, 그리고 학통 및 학문적 수준에서도 서로 상대되는 두 개의 붕당이, 사림정치라는 공동의 목표구현을 위해 공론을 앞세워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정치형세를 이루게 되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형태의 붕당 개념, 즉 개인간의 갈등과 대립에 그 친척·친구가 각기 편들어 대립하는 私黨 및 歐陽修·朱子에 의해 확립된 君子朋·小人黨의 형태와도 다른, 第三의 개념에 의한 公黨 형태였다.

사류가 분열하여 각기 하나씩의 붕당을 형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奸黨의 결성으로 보아 《大明律》 奸黨條의 죄목을 적용할 수는 없고, 더욱이 군자당 소인당의 변별론을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하였다. 사류가 모두 군자인 것만은 아니며 그 속에는 열등한 자도, 심지어는 外君子 內小人和 같은 존재도 끼어 들 수 있기 때문이다.⁵⁰⁾ 각 당은 이제 자체 내부

50) 일찍이 朱子が 송나라의 朋黨을 논하면서 “단지 상대방이 군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알았지 자기 당 사람이 반드시 소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여 사류속에 小人이 잠재해 있을 수 있음을 말한바 있지만(《朱文公文集》 권 28, 與留丞相書 7월 10일), 서인을 사류당으로 확립하려 노력하던 이이 역시 “오늘날 서인편이라고 해서 반드시 君子라고만 할 수 없으며 東人측

에서의 정화과정을 거쳐 公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해야 했으며, 상대당을 타도의 대상이 아닌, 사림정치의 실현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경쟁 상대인 공당으로 인정하며, 공론을 앞세워 당당한 정치명분으로서 사림정치의 실현을 위해 정권장악을 다투는 정치형태 곧 봉당정치를 지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선조 8년(1575)의 乙亥黨論 이후의 동서봉당에서가 아니라, 선조 16년의 동서봉당의 확립에서 봉당이 비로소 출현했다고 보는 所以는 여기에 있다. 중국의 봉당이나, 조선전기의 봉당과도 다른 조선중기 정치상의 큰 특징을 보이는 봉당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제 3의 봉당, 즉 사류의 봉당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립한 봉당에 토대한 봉당정치는 초창기여서 그런지 선조말까지는 그 운영에 있어서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대체로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선조 22년의 鄭汝立獄으로 잠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해 동인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여서 마침내 다수의 동인 名士가 역육관련 혐의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불상사를 겪었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서인은 선조말까지 거의 실세한 상태에서 겨우 정계의 일각을 차지하는 데에 머물렀으며, 남인·북인으로 갈라선 뒤 임진왜란 때의 척화 주장으로 집권 명분을 갖게된 북인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大北·小北으로, 다시 대북이 骨北·肉北 등으로 권력 향배에 따라 재분열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왕실과의 戚分을 앞세운 柳永慶이 정권을 좌우하게 됨으로서 사림정치에서 가장 경계하는 척신정치가 재현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림정치에 역행하는 척신정권이 나타났다는 것은 선조 즉위초의 구체제 청산이 혁신적이지 못해 그 잔재가 남아있었던 사실과, 특히 정여립의 옥으로 인한 봉당간의 대립 열도가 지나치게 높아 봉당정치 본래의 조제론에 의한 상호비판과 견제 구도가 제대로 적용될 수 없었던 데 이유가 있었다.

봉당 간 조제의 실패를 틈탄 척신정치의 대두는 필연적으로 왕위계승을 둘러싼 조신간의 갈등을 격화시켰다. 그리하여 선조 말년의 정치상황은 그

이라 해서 반드시 小人이라고만 할 수 없다”고 한 것(《宣祖修正實錄》 권 17, 선조 16년 9월, 이조판서 이이의 상소)은 이런 사정에서 나왔던 것이다.

동안 구축 해놓은 조제중심의 붕당정치가 크게 동요되는 가운데 장차 광해군 치하의 一黨專制 추세에서 벌어질 정치판의 비극을 胚胎해가고 있었다.

〈鄭萬祚〉

3. 붕당의 성격

붕당은 조선 선조대에 처음 나타난 정치 현상만은 아니었다. 그것이 처했던 역사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내용이나 성격은 조금씩 달랐을지는 모르나 붕당의 명목은 중국에도 있었고, 선조 이전의 실록기사에서도 붕당의 용어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붕당들에 대한 당 시대 사람들의 인식이나 평가 등, 그것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급도 적지 않게 모을 수 있다.

따라서 선조 6년(1573)~7년경 외척의 정치관여 문제와 관련된 沈義謙·金孝元 사이의 是非에서 비롯되어 마침내 士林의 分岐에 따른 東人·西人 명목의 출현, 그리고 李珥에 대한 탄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동인 言官과의 일대 논쟁 끝에 이이의 서인 自定으로 政派로서 성립을 보게 된 동인·서인의 붕당이 갖는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전시기의 붕당에 관한 인식, 즉 朋黨論을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朋黨이란 본래 친근한 벗을 뜻하는 同類·同志의 뜻인 朋과, 利害 때문에 모인 小人の 집단을 뜻하는 黨이란 상반된 뜻을 지닌 두 글자의 合成語인데 이미 《戰國策》이나 《史記》에서부터 “밝은 임금은 붕당의 문호를 막는다(明主塞朋黨之門)”든가 “붕당을 막아 백성을 독려한다(禁朋黨 以勸百姓)”¹⁾는 데서 보듯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後漢末 환관들에 의해 李膺·陳蕃 등의 善類를 제거하는 黨錮의 禍가 일어나면서 붕당이란 용어는 정치상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붕당 명목을 지닌 정치집단으로서 역사상에 처음 모습을 드

1) 《戰國策》趙策 및 《史記》蔡澤傳.

러낸 唐代 牛僧孺·李德裕 사이의 牛李黨爭이 황제인 文宗으로 하여금 “河北의 도둑을 쳐서 없애기는 쉬우나 조정의 봉당은 없애기 어렵구나”라는 탄식을 토하게 할 만큼 정치상의 폐단을 야기하였고, 뒤이은 宋代의 新·舊法黨 사이의 장기간에 걸친 대립과 내분이 결과적으로 이민족인 金の 침입을 유발, 北宋의 멸망까지 초래케 함으로써 봉당은 이제 군주권을 침해하고 조정을 어지럽히며 국력을 약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 亡國의 요인으로까지 인식되기에 이른다. 明의 법전인 《大明律》奸黨條에 “조정에 있는 관원으로서 봉당을 交結하여 조정의 정치를 문란하게 하는 자는 모두 목 베이며 妻子는 종으로 삼고 재산은 관에 몰수한다”고 하여 봉당 결성을 죄목으로 규정해 놓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중국의 봉당 인식이 부정적인 시각 일색은 아니었다. 중국 역사상 봉당이 장기간에 걸쳐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라고 말해지는 宋代에는 봉당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에서 그 존재를 합리화하거나 봉당활동을 정당화하는 봉당론을 펴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북송의 歐陽修와 남송의 朱熹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구양수는 그의 유명한 ‘朋黨論’에서 利를 좇는 小人은 일시적인 私黨(僞朋)을 이룰 뿐이지만 君子만이 진정한 朋黨(眞朋)을 이루므로 봉당을 위협시킬 필요도 없고 오히려 임금은 이 군자의 봉당을 벼슬로 끌어와야 한다고 하였다. 군자·소인의 변별기준이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집단을 眞朋으로 삼고 僞朋이라 할 것이냐가 문제되겠지만, 그러나 이때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봉당은 군자의 집단으로 간주되어 비로소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의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봉당의 죄목으로 공격을 받는 데 대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같은 봉당긍정론을 폈으나 朱子の 논리는 조금 달랐다. 그는 우선 봉당의 폐단을 인정하고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봉당을 싫어하게 마련이라는 일반론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봉당은 조정 신하 사이의 서로 다툼에 그칠 뿐이지만 그것을 미워해 없애고자 한다면 나라마저 망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²⁾고 하며, 북송의 哲宗연간에 舊法黨(元祐黨)을 봉당의 죄목으로

2) 《朱文公文集》卷 28, 與留丞相書(4월 24일).

몰아 일시에 축출했다가 蔡京 등 소인의 전횡을 허용, 결국 靖康의 변을 만나 나라가 망한 역사적 경험을 예로써 들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봉당망국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써 본다면 진정한 의미의 봉당 즉 군자당인 구법당을 제거한 것이 도리어 亡國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에 있어서 봉당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군자를 정치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치형태였다. 이러한 봉당긍정적 시각 위에서 朱子는 君子小人에 대한 철저한 변별과 변별한 뒤의 철저한 進君子·退小人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봉당론을 전개하였다.³⁾

군자소인변은 주자 이전에도 제기되었던 논리이지만 주로 봉당이 군자의 집단임을 강조하려는 데 초점이 주어졌던 데 비해 그의 그것은 봉당내의 구성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데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는 신법당이 소인이고 구법당이 군자라는 견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법당의 사람들이 “단지 異己者(신법당을 말함)가 군자가 아니라는 점만 알았을 뿐, 同己者(구법당임)가 반드시 소인이 아니라고 만든 할 수 없다(즉 자기 당 안에도 소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⁴⁾라 말한 데서 보듯이 같은 봉당 내에도 군자소인의 분별은 엄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같은 봉당내의 인물에 대해 善人과 惡人을 살펴 구별해 내려는 辨別淑慝이나 濁流를 쳐서 淸波를 일으키게 한다는 뜻의 激濁揚淸을 강조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런 면에서 그의 봉당관은 봉당=군자집단으로 보는 구양수의 그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봉당=군자·소인 병존이라는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宋代에는 구양수·주희의 봉당론 이외에도 調停論이라는 논리가 있었다. 그것은 신법당과 대립해 오던 구법당이 다시 洛黨(程頤)·蜀黨(蘇軾)·朔黨(呂公著·劉摯)으로 나누어져 상호갈등이 심화되자 이를 우려한 范純仁·呂大防 등이 三黨의 조화와 절충을 꾀하면서 나아가 신법당의 일부인물까지 收用하며 봉당간의 대립을 완화시키려 한 데서 나왔다. 각 봉당의 인재를 함께 벼슬에 불러들인다 하여 並用論 또는 俱收並蓄論이라고도 말해지는 이

3) 諸橋轍次, 〈朋黨の成因と儒學目的の分化〉(《諸橋轍次 著作集》第1卷).

4) 《朱文公文集》권 28, 與留丞相書(7월 10일).

조정론자의 붕당관은 그것을 죄악시하는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었으나 같은 구범당계이던 구양수의 군자붕당설과도 거리가 있었다. 예컨대 范純仁은 진붕·위붕에 대한 변별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붕당이, 자기 당 사람을 옳다 하고 다른 당 사람을 무조건 배척하는(黨同伐異) 폐단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하여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론이 심하지 않은 자를 불러들여 궁극적으로 無黨의 상태를 구현한다는 것이었다. 黨禍를 경계하여 붕당 사이의 대립의 열도를 완화시키려는 극히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논리라 하겠으나, 이들의 후배로서 黨人 내의 辨別淑慝을 앞세우던 朱子에 의해 그것은 화란을 부르고 일을 망치는 것으로 배격되었다.⁵⁾

이상의 붕당론으로 볼 때 중국에서의 붕당은 논리상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사사로운 이해 관계를 쫓아 결성된 私黨이고, ② 道를 같이하고 그 실천에 힘쓴다는 군자의 眞朋이며, ③ 善類와 不善類, 심지어는 군자와 소인으로 대비되는 존재까지 병존해 있는 붕당이었다. 현실적인 면에서 하나의 정치집단 내지 정치세력에 대해 어떤 붕당 형태를 적용하여 성격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예컨대 임금의 처지에서는 아무래도 붕당 私黨의 견해를, 집권당의 측면에서는 君子眞朋論을 적용하려는 식으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이었다.

조선에서의 붕당인식도 초기에는 개인적 차원의 갈등과 상호배척에 그 친척이나 친구가 각기 편을 들어 무리를 이루어 대립하는 ①의 사당론적인 부정적인 범주에 머물렀다. 성종 9년(1478) 도승지 任士洪이 朴孝元·表沿沫 등 몇 명의 인관들과 결탁하여 정적인 玄錫圭의 제거를 획책하다가 거꾸로 붕당으로 지목되어 탄핵을 받았던 일⁶⁾이나 연산군 때의 두 차례에 걸친 사화에서 피화인의 죄목으로 《대명률》의 交結朋黨이 적용되었던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붕당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이해가 깊어지기는 중종대 趙光祖 등 사림 세력이 정계로 진출하면서부터 었다. 그들의 논리는 구양수와 주자가 주장한

5) 정만조, 〈朝鮮時代 朋黨論의 展開와 그 性格〉(《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89~95쪽.

6) 《成宗實錄》권 91, 성종 9년 4월 경신.

군자소인변 중심의 봉당론에 토대하였다. 그들은 스스로를 ②의 군자당으로 설정하고 사우관계에 의한 자체결속을 바탕으로 古道の 실천에 힘쓰는 한편 公道의 회복에 주력함으로써 군자당의 위상에 맞도록 자체정비를 하면서, 정치상의 도학을 실천하려는 정치집단으로서의 그들 존재를 합리화하였다. 따라서 봉당의 결성은 至治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군자의 進用을 위해 불가피한 정치현상이며, 그러므로 그런 봉당은 임금까지 들게 해야한다(引君爲黨)고 할 정도의 公黨의 존재로 설명되었다. 여기서 조광조 등이 수립한 정치집단으로서의 봉당은, 종래의 단순한 친소관계나 이해득실에 따라 취합한 私黨의인 데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공당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하겠으나, 곧 그들과 대립하던 공신계에 의해 도리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사당으로 몰려 죄를 입음으로써, 군주제하에서 신료간의 집단형성(政派)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일단 다음 세대로 넘겨지지 않을 수 없었다.⁷⁾

동인·서인의 봉당이 출현한 선조대에서 봉당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크게 일어나기는 선조 5년(1572) 영의정을 지낸 李浚慶이 죽음에 임해 올린 遺劄에서, 당시의 조정에서 행실과 학문을 닦지 않고 高談大言이나 일삼는 풍조가 있어 장차 봉당의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한 데서부터였다. 고담대언을 일삼는 무리가 舊臣과 대립관계에 있던 연소한 관료(즉 士類)를 지목하였음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으며, 따라서 이준경의 의도는 사류를 사당적 의미를 지닌 봉당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사류가 이준경을 격렬히 비판하고 나온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을 봉당으로 모는 주장에 대응하여 그들의 정치적 존재와 활동을 변호하고 정당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들을 대표하는 李珣에 의해 정립된, 구양수와 주희의 봉당론에 토대한 군자봉소인당 중심의 봉당긍정론—군자당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이이는 심지어 봉당이 성할수록 임금은 더욱 聖君이 되고 나라는 더욱 편안하게 될(黨益盛 而君益聖 國益安) 것이라 하여 봉당이 갖는 정치적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까지 시도하였다—은 이런 배경 아래에서 나왔던 것이다.⁸⁾

7) 정만조, 앞의 글, 99~105쪽.

8) 정만조, 위의 글, 105~112쪽.

그러나 이와 같이 적극적인 봉당공정론까지 피력한 이이에게조차도 모든 봉당이 다 정당화 될 수는 없었다. 관료나 사류사이의 사적인 친소관계에 따른 봉당은 비록 소인들이 결성한 사당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고 타파되어야 할 것이었다. 선조 8년 이른바 乙亥黨論이라하여 심의겸과 김효원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되고 그들을 각기 지지하는 士類 內 선후배사이의 분열로 봉당을 형성하는 조짐이 나타나자 심의겸·김효원 두사람의 外補를 통해 그것의 해소를 적극 추진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물론 심의겸·김효원 두 사람과 그들을 각기 지지하던 선후배들은 상대편을 소인으로 몰았다. 그러기에 심의겸·김효원 시비가 나온 지 2~3년도 안되어 동인·서인이라는 朋黨名目이 형성되었고 결국 16년 정파로서의 봉당이 성립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인·서인의 정치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개된 봉당론은, 그들 모두 朱子 성리학의 기반에 있었던 만큼 당연히 宋代 구양수·주희의 그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중국에는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봉당론이 나왔다. 이른바 調劑論이 그것이다. 조제론은 사림의 분열이 가져올 정치적 위기와 개혁을 추진할 사류의 역량 결집에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제기되었다. 처음에는 兩是兩非로서 봉당명목을 타파하고 동인·서인을 함께 버슬에 불러들이는 방식이었으나 사류 분열에 따른 정치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든 뒤에 가서는, 동인·서인이 각기 사류의 봉당으로서 존속하면서 辨別淑慝과 激濁揚清에 의해 자체 내부의 深化를 추진해 公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사림정치의 실현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경쟁적 상대인 공당으로서 인정된 위에, 집권당에 의해 상대 당 인재를 選別 收用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조제론에서 보이는 봉당의 개념은 구법당이 洛黨·蜀黨·朔黨으로 分岐한 데 대한 朱子의 봉당인식, 즉 同己者가 반드시 군자인 것만은 아니며 異己者라하여 반드시 小人만은 아니라는, 善·不善, 君子 小人이 하나의 봉당에 병존할 수 있다는 데서 논리적 근거를 구하고는 있지만, 실은 사류의 분열에 직면하여 ①의 사당적 개념이나 ②의 군자소인의 봉당론을 적용하기에 곤란해진 상황에서 나오게 된 제 3의 봉당론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시기 동서인의 봉당으로서의 성격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때는 아직 分朋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후의 붕당에서 보이는 세습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조선 붕당의 특징이라는 학연성도, 동인에 退溪·南冥의 문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서인에 李珣·成渾과 학문적 교류가 있는 인물이 가담해 있는 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성향 역시 그리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다.

초기의 동인·서인의 붕당에서 비교적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출신기반과 관련된 지역성의 요소이다. 대체로 동인의 주축은 영남과 호남 등 지방 출신자이거나 그곳과 연고가 있는 인물로 되어 있으며(박순·구봉령 등의 예외가 있기도 하다), 서인은 특히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 기반을 두고 대대로 벼슬하여 온 世族집안 출신들이 많았다. 그러기에 외척인 심의겸과 가까울 수 있었으며 초기에 외척당으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서인으로 지목되기 전 선배사류로 있으면서 그들이, 출신기반이 같으면서도 權臣政權과의 연결문제로 舊臣세력과 대립하고 배척했던 이유도 이러한 데서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分黨 초기의 동인·서인이 갖는 붕당으로서의 성격은 이러한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주자성리학적 이념의 현실정치에서의 적용을 회구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士族 내지 士林의 이념을 가진 정파였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鄭萬祚〉